"선발 노하우부터 슬기로운 실습생활까지,
5가지 주제로 도전!"

현장실습 합격기

후기공모전

2025

수상작 모음

참여 주제

1.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2.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3.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4. 함께 성장하는 곳: 우리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5. 더 나은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한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팀

| 공모전 시행 개요

□ 응모 기간 : 2025. 9. 30 ~ 10. 22

□ 참가 자격 : 2023학년도 1학기 부터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 누구나 가능 (휴학생, 졸업생 가능)

□ 참가 방식 : 제시된 다음 5가지 주제 중 택1하여 후기 글 작성

1)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2)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3)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4) 함께 성장하는 곳: 우리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5) 더 나은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 시상 내역 :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6명 20만원 상금 및 상장

- 참가자 전원에게 커피 쿠폰 제공, 수상자의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소정의 선물 전달

□ 접수 결과 : **총 96편 접수**, 양질의 우수작을 고려해 '입선작' 추가 반영

[공모 주제 세부 설명]

1.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 준비부터 면접까지, 합격 비법과 전략 공유
   - 예시: 합격 과정, 기업 선택 준비, 자기소개서 팁, 면접 예상 질문 등

2.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 실습 기간 목표, 업무, 성장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
   - 단순 업무 나열이 아닌 배운 점과 느낀 점 중심

3.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현장실습 기관 소개
   - 기업 장점, 조직 문화, 담당 직무, 추천 이유를 경험과 함께 작성

4. 함께 성장하는 곳: 우리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 실습생 성장을 위한 교육·멘토링 경험 작성
   - 예시: 교육 프로그램, 직무 관련 스터디, 1:1 멘토링 등

5. 더 나은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 경험 기반 개선점 및 건설적 제안 작성
   - 따끔하고 날카로운 제안일수록 발전에 도움

| 수상작 목록

No	수상	이름	소속학과	실습 기관	작성 주제
1	대상	**김남성**	전기공학전공	삼성전자 DS부문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2	우수상	**엄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한국맥도날드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3	우수상	**안준영**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삼성전자DS AI Center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4	우수상	**류원희**	경영학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5	장려상	**한민우**	유기나노공학과	삼성전자DS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6	장려상	**최진혁**	경영학부	지니웍스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7	장려상	**박기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스튜디오161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8	장려상	**김우진**	독어독문학과	미리디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9	장려상	**진송아**	경영학부	미쉐린코리아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10	장려상	**양병현**	정보시스템학과	여기어때컴퍼니	E. 더 나은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11	입선작	**김우진**	독어독문학과	미리디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12	입선작	**우재린**	행정학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13	입선작	**공현진**	경영학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E. 더 나은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14	입선작	**지민선**	중어중문	에듀윌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15	입선작	**김찬경**	기계공학부	HD현대중공업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16	입선작	**김민지**	사회학과	한국일보사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17	입선작	**곽건우**	경영학부	한국리서치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18	입선작	**이다은**	경영학부	한국투자증권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19	입선작	**이규림**	건축학부	스마트그린솔루션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20	입선작	**이재민**	기계공학부	HD현대로보틱스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21	입선작	**김하늘**	경영학부	DB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부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22	입선작	**박수빈**	관광학부	엑스포럼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 기관 추천글 모음

No.	이름	소속학과	실습 기관	비고
1	류원희	경영학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우수상
2	진송아	경영학부	미쉐린코리아	장려상
3	김우진	독어독문학과	미리디	입선작
4	김찬경	기계공학부	HD현대중공업	입선작
5	안준영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삼성전자DS AI Center	
6	조남경	융합전자공학부	삼성전자 DS부문	
7	김유진	독어독문학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8	이상익	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한국맥도날드	
9	김경이	사학과	(KT) 나스미디어	

No.	이름	소속학과	실습 기관
10	맹성재	기계공학부	중앙엠이씨
11	이종연	국제대학 국제학전공	대한상공회의소
12	유승연	경영학부	신성통상
13	김영훈	국어국문학과	한국생산성본부
14	허신	심리뇌과학전공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5	김명준	자원환경공학과	포스코
16	백인혁	융합전자공학부	삼성전자 DS부문 S.LSI사업부 Modem개발팀(1)
17	김지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삼성전자 DS부문

🏆 대상

김남성 | 삼성전자 DS부문

- 응모자 정보 : 전기공학전공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메모리사업부 Flash설계팀 - Layout 설계및 검증, Auto P&R

주제 :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준비는 일찍, 전략은 구체적으로, 면접은 자신 있게." 2학년부터 현장실습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고, 4학년 1학기에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Flash설계팀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 준비 과정 — '정보가 곧 경쟁력이다'

현장실습 합격의 핵심은 미리 준비하고, 넓게 탐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공학전공과 융합전자공학부를 함께 전공하며 반도체 산업 진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학년 2학기부터 하이웹(HYWEP) 홈페이지에서 이전 실습 공고를 분석했습니다. 시기별로 어떤 기업이 어떤 직무를 모집하는지 정리하고, 선배들의 실습후기와 HY-CDP 취업후기를 참고해 필요한 역량과 스펙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경험과 역량을 쌓기 위해 3학년부터 이수할 전공과목과 인턴을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로설계 직무를 목표로 한다면 3학년 2학기 '전자회로Ⅱ'와 'VLSI공학' 수업이 중요하므로 그 학기에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공정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4학년 1학기 '반도체회로공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공 개설 시기를 고려해 실습 계획을 세우면 학업과 경험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절학기 종료 무렵 공고가 올라오며, 지원서 제출에 1주일의 짧은 시간만 주어지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하이웹 홈페이지에서 이전 연도의 공고를 참고해 실습목표, 직무 내용, 필요 역량을 분석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신입공채의 Job Description도 참고하여 제 전공역량과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같은 회로설계분야여도, 사업부별로 요구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DS부문은 실습 직무가 향후 입사 시 배치 부서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부와 직무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2. 서류 작성 — '논리적인 스토리와 전공 기반의 설득력'

삼성전자 DS부문의 지원서는 두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경험을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서류는 훗날 자기소개서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1번 문항 – 관심 기술분야 및 관련 학업/기타 이력]

관심 기술분야는 마음대로 바꿀 순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경험은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학업/기타 이력을 작성했습니다.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관련 전공 수강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정리하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PBL 과목처럼 실제 회로를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한 경험을 중심으로,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관련 기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 기술분야를 끼워 맞추었습니다. 관심 기술분야를 잘 알 수 있는 팁은 바로 전공과목 교수님들의 연구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작성할 땐, 작성 순서대로 적거나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기보다 "관심 기술의 배경 → 관련 전공·프로젝트 경험 → 이를 통해 얻은 역량"의 흐름으로 작성하면 논리적인 글이 완성됩니다.

[2번 문항 - 지원동기]

두 문항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어필하고 싶은 프로젝트 경험이 많다면 두 질문에 나누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경험이 별로 없다면, 구체적인 수치나 결과물 등 깊은 내용은 첫 번째 질문에, 해당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된 계기나 경험을 통해 느낀 점 등은 두 번째 질문에 작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샤이닝스타"나 "삼성드림클래스"같은 삼성에서 진행한 대외활동이 있다면 지원동기로 아주 적합합니다.

[서류 작성 팁]

최신 반도체 이슈나 기술 트렌드를 함께 언급하면 전문성이 돋보입니다. 전공 프로젝트는 본인의 역할, 수행 내용, 배운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마지막에는 "실습을 통해 배우고 싶은 기술과 성장 목표"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글 전체를 한 문단으로 쓰기보다는, [프로젝트 경험] / [지원 동기] 등 소제목을 넣는다면 가독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3. 면접 준비 — '기술과 태도, 두 축을 모두 챙겨라'

제가 지원한 메모리사업부의 면접은 인사면접과 기술면접 두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비대면 온라인 면접"이었습니다. 온라인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장비 점검이 필수입니다. 네트워크 환경과 마이크, 카메라 상태를 미리 테스트하고, 삼성전자의 경우 배경화면 변경이 금지되므로 방 정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미리 화면에 보이는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방 정리를 깨끗하게 해 놓았고, 실습 도중 면접관이었던 선배님으로부터 깔끔한 성격인 것 같아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면접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외모나 인상 등을 좋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동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합니다. DRAM에 지원한다면 왜 DRAM인지, NAND에 지원한다면 왜 NAND에 지원했는지 답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작원리에 매력을 느꼈다거나, 산업의 흐름에서 DRAM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1분자기소개'의 경우에는 유튜브의 여러 영상을 참고하면서 다듬고 외우면 됩니다.

[인사면접 – 논리적 대화와 시사상식]

인사면접은 인사팀 면접관 1명과 지원자 5명이 함께하는 그룹 면접으로, 내 차례가 아닐 때도 다른 지원자의 답변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타지원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꼬리질문을 나에게 던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구조(DRAM, NAND의 동작 원리와 차이점 등)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삼성전자의 최신 뉴스를 숙지해두면 시사 관련 질문에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OO기업 신년사를 검색하면 해당 기업이 앞으로 목표로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기에 면접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실제 제 면접에서, 당시 이슈였던 '삼성 갤럭시S25에 자사 AP 미탑재', '중국 딥시크(DeepSeek)' 등 반도체 뉴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사면접은 산업 동향과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적 깊이보다 '관심도와 사고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술면접(임원면접) - '프로젝트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기술면접은 약 1시간 동안 6명의 면접관이 참여했습니다. 지원자 4명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자기소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세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회로설계 직무였기에, 프로젝트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회로를 공통질문으로 받았습니다. 이 때, 가장 필살기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 경험을 답변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류에 적은 내용은 100%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직면했던 문제와 이를 해결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4. 마무리 및 조언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현장실습 합격은 '운'보다 '준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이웹 공고를 미리 분석하고, 자신의 전공 강점과 직무 연관성을 스토리로 풀어내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웹 홈페이지에서 학과 선배들의 실습후기를 참고한다면 본인의 지원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현장실습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정보 수집은 미리, 서류는 논리적으로, 면접은 진심으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침)

🏆 우수상

엄민정 | 한국맥도날드

- 응모자 정보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2023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겨울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언론 모니터링과 오프라인 행사 기획 및 진행

주제 :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나는 현장실습학기 지원을 총 세 번 도전했었다. 한 번은 면접에서, 두 번은 서류에서 탈락했다. 특히 첫 면접에서는 면접관 여섯 명과 지원자 다섯 명이 함께 들어갔는데, 나만 단 한 번도 개인 질문을 받지 못하고 병풍처럼 앉아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날 이후 자존감이 바닥을 쳤지만, 포기하기에는 나의 존재 가치가 폄하되는 것 같아 끝까지 두드려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규모 있고 복지 좋은 회사의 현장실습에 합격했다. 3학년으로서 7:1의 경쟁률을 뚫은 나만의 합격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유하고자 한다.

1. 이력서의 '테마'를 잡아라 (AI 적극 활용하기)

이력서를 매번 새로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양대 현장실습학기제는 공통 질문 4개만 적으면 돼서 수월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동기'나 '앞으로의 다짐' 같은 부분은 기업마다 다르게 적어야 한다. 나는 첫 면접 탈락 이후 두 번 연속 서류 탈락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이력서의 테마 부재'였다. 비슷한 문장을 복붙하듯 쓰다 보니, 회사마다 차별화된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나는 기존 이력서를 다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했다. 내가 사용한 작성 노하우는 다음과 같다.

1) 내가 했던 모든 경험과 활동을 정리한다.
2) 그 중에서 회사에 매력적으로 보일 경험만 취사선택한다.
3) 선택한 경험을 중심으로 '왜,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멋진 표현보다는 진정성 있는 문장이 훨씬 낫다. 표현은 AI에게 맡겨도 된다.
4) 마지막으로 4개 질문의 내용을 잇는 '테마'를 설정한다!

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회사에 지원했기 때문에 '햄버거'를 테마로 잡았다. 자소서의 각 문항에 언어유희를 활용한 소제목을 달아,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히게 구성했다. AI가 간혹 더 창의적인 답변을 해줄 때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이때 회사의 분위기가 자유로운지 보수적인지를 파악해 맞춰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다른 학생들의

실습후기를 참고하면 감이 온다.)
완성된 지원서를 읽었을 때는 '이건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라는 사람의 진심과 구조가 동시에 담긴 글이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면접 기회가 찾아왔다.

2. 실습후기를 '파묘'하라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긴장하지 않기'다. 하지만 긴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것이 없게 하기'다. 내 자소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는 건 기본이고, 회사 정보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우선 자소서 관련 준비로는 AI를 활용한 가상 면접 연습을 적극 추천한다.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내 자소서를 보고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아?"라고 물어보고 직접 대답하는 것을 반복해보면, 실제 면접장에서 유사한 질문이 등장할 때 훨씬 수월하게 답변의 핵심 키워드를 생각해낼 수 있다.
다음은 회사 정보 습득이다. 나는 실습후기들을 정말 파묘하듯 꼼꼼히 읽었다. 내가 지원한 부서뿐 아니라 타 부서의 후기까지 읽으면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프로젝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실습후기에서 얻은 정보를 답변에 녹여냈더니 면접관 분이 "회사에 대해 많이 알아 봐주셨네요"라고 칭찬하셨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서 혼동'이다. 면접 중에 "그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닌데요?"라는 말을 들으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어떻게 아냐고?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또한 기업 홈페이지, 최근 기사, 해당 산업의 주요 이슈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생각보다 이를 철저히 하지 않는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기업에 관심 있는 지원자'로 인식될 수 있다.

3. 플랜 B를 준비하라

내가 면접장에서 가장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떨어져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었다. 나는 여름방학 때부터 혹시 실습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수강신청도 꼼꼼히 했다. 사회봉사 과목도 미리 신청해둬서, 꽤 괜찮은 학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플랜 B를 만들어두니 마음이 훨씬 가벼웠다. 실제로 3:1 면접에서도 여유롭게 대답할 수 있었다. 면접이 끝날 무렵, 면접관 한 분이 "어쩜 그렇게 떨지 않고 말을 잘하나요?"라고 칭찬하셨다. 그 순간 확신했다. 불안보다 준비가 강하면, 면접은 무섭지 않다.

4. 면접관이 말한 '합격 이유'

입사 후, 면접을 봤던 팀원분들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조심스레 여쭈어봤다. "혹시 왜 저를 뽑아주셨나요?" 그분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적극성이다. 준비했던 부분 중 면접에서 질문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었다. 준비한 것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내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때의 당당한 태도가 일을 할 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았다고 하셨다.
둘째,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능력이다. 한 팀원 분은 참여한 모든 면접에서 공통질문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가장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답했던 사람이 나라고 했다.

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보다 내가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힘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다.
많은 지원자들이 인턴 면접에서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지만, 회사는 사실 '배우려는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본다. 입사 초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배워가세요"였던 이유다. 결국 태도와 자세가 합격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5. 꼭 하고 싶은 말, 자존감 떨어지기 금지!

나는 현장실습 합격에는 '운'도 크게 작용한다고 믿는다. 그건 단순한 랜덤의 운이 아니라, '내가 그 회사가 찾는 인재인가?'에 대한 맞음의 운이다.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못난 게 아니다. 그저 그 회사의 분위기나 면접 방식이 나와 잘 맞지 않았을 뿐이다.
사실 맨 처음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밥을 조금 더 먹은 것 말고는 거의 변한 게 없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차이는 환경과 마음가짐의 차이였다. 나는 6:5 집단면접보다는 3:1 면접이 잘 맞았고, 처음보다 지금 마음의 여유가 훨씬 컸다. 아마 그 차이가 나를 합격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 번의 탈락에 낙담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자리를 찾아가길. 결국,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무대를 만나게 되어 있다.

(마침)

🏆 우수상

안준영 | 삼성전자DS AI Center

- 응모자 정보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물성/예측 AI 고도화 및 웹 개발을 통한 사내 파이프라인 통합

주제 :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지난 1학기, 삼성전자DS AI Center의 장기현장실습에 합격한 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비결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를 면접봐주신 연구원님께서 실제로 해주신 조언까지 녹여내어, 우리 한양의 후배들이 강의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기업 현장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합격 A-Z를 작성합니다.
졸업자가 지원하는 인턴 프로그램보다 이른 시기에 진행하는 현장실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해당 기업에 좋은 인상을 심고, 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으며, 미래에 다시 기관으로 돌아올 자들의 역량을 미리 배양시키는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즉, 실습기관은 '완성된 사람'을 찾기보다, 잠재력과 태도를 가진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핵심은 완벽함의 증명이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업 ≠ 최고의 선택]

공고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기간에 임박하여 올라오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선별 인원/모집 및 전형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엑셀/노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타임라인이 겹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적정 2개) 타겟 기관 지원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문단에서 말했듯이, 현장실습의 가장 큰 의의는 '강의실에는 없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HY-WEP으로 자신의 한 학기를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을지를 고려하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최소 한 개의 기업은 과감하게 지원해보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No.1 기업인 삼성전자DS를 선택했기 때문에 위의 기준들을 세우는 것을 모순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는 2년 전 스타트업에서 1년을 정규직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었기에, 대규모 팀의 구성원으로서 협업하는 경험의 부재를 보완하고자 내린 선택이었으며 실제로 지원 직전까지 컴퓨터 비전 관련 스타트업과 두고 고민하였습니다. 종국에는 해당 기관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과 성장을 얻었지만, 자신의 최우선 가치에 따라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류: 최소한 남들 만큼은 하는 지원자]

서류는 단순히 스펙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AI 분야 전공자로서 학부 내내 여러 연구 경험을 쌓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각 경험의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했는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각 경험 아래에 상세히 나열하고 시작합시다.
지원하는 분야가 본인의 경험 및 진로와 일치하는 경우, '전공적합성'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한양인들은 이미 워낙 익숙할 것이므로 자기소개서 등에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는 않거나 심지어는 꽤나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얼굴 이미지 생성 AI 연구 경험을 갖고, 물질 소재 예측 AI라는 완전히 다른 분야를 다루는 부서에 합격한 제 사례를 보면:
'3D 아바타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강조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스와 딥러닝의 경계에서 "데이터 효율적이면서도 극적인 상황에서 강건(robust)한" 얼굴 아바타를 구현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거의 없음에도, 예측 분야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강건함을 달성하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하므로, 근본적인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기에,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관 사고(associative thinking)와 지식 전이 능력(knowledge transfer)으로 확장하여 강조했습니다. 이 점이 제가 전혀 다른 분야였던 물질 소재 AI 부서에 합격하여, 실제로 실습 기관동안 어려움 없이 새로운 분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도 당시 면접관님들께서는 그러한 미래를 미리 봐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기업의 비전을 홈페이지/CEO 인터뷰 등을 알아본 후, 이를 인용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공감했는지, 그렇기에 그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경험을 하고싶다"는 내용을 넣어 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습과 별개로 굳이 해당 기업을 원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으며, 저의 경우 CES2025에서의 비전 발표문을 다수 읽어보고 제 직무가 기여하는 부분과 연결시켰습니다.

[면접: 남들이 못할 때도 잘하는 지원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는가'보다 '어떻게 배우는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서류를 통과한 이상, 이미 일정 수준의 역량은 검증된 상태이기에, 면접관은 "이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면접에서 "AI는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하는데,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공부했고, 물질·소재 분야는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평소 arXiv 등에서 키워드별로 논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낯선 주제도 연관 지어 이해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서류 단계에서 어필했던 지식 전이(knowledge transfer)와 연관 사고(associative thinking)의 연장선이었고, 실제로 면접관님께서 해당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여기셨다고 실습 당시 커피챗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기소개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면접관이 서류를 읽으면서 자기소개를 듣기 때문에, 단순한 이력 나열보다는 서류의 핵심 내용을 간결히 정리하고, 포부나 인성을 덧붙이는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류 - 면접 간의 통일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 질문은 어느 분야든 다소 깊게 들어올 수 있으니, 본인의 분야 핵심 개념과 지원 직무의 기술적 배경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정과 에너지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업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싶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된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는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말투의 온기, 시선의 확신, 마지막 인사의 진정성 이 세 가지는 기술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접은 지식의 시험이 아니라 태도의 대화임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한양의 후배님들은, 분명 시간을 할애하여 현장실습 제도와 기관을 알아보고, 미래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저보다 훌륭한 학생입니다. 꼭 자신의 우수함을 기업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잘 가꾸어진 보석의 형태로 드러낼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양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응원으로 글을 마칩니다. 훌륭한 제도를 운영해주시는 다수의 기업과 우리 한양대학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침)

🏆 우수상

류원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응모자 정보 : 경영학부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정책금융실 인프라펀드팀의 업무를 주로 도와 회의록 작성, 지출품결의, 그 외 부서자료 취합 등을 맡았습니다.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그 어떤 실습기관보다 KIND한 기업, KIND를 소개합니다!
현장실습생에게 '사원' 직위를 주시고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현장실습 기관 중 몇 안되는 금융 공기업 성격을 지닌 기업!
현장실습생에게 아기 돌보듯 친절히 일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부서 직원 분들이 계시는 기업!
현장실습생에게 타 부서 직원 분들도 먼저 다가와 밥을 사주시려는 분위기의 기업!
바로 KIND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경영학부 22학번 류원희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정책금융실 소속 IPP사원(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KIND 정책금융실에서 근무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어느때보다 알차고 즐겁게 보내고 있어, 한양대 동문분들께 KIND에서의 근무 경험을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1. KIND, 배움에서 KIND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해외투자개발 전문기관으로, 특히 정책금융실은 PIS·GIF·녹색펀드 등 정책펀드의 조성·운용·사후관리 전 과정을 총괄하며 모태펀드로서 하위 펀드들에게 출자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합니다. 저희 부서는 하이웹에서 몇 안되는 금융공기업 성격의 기업이라 특별합니다.

저는 정책금융실의 전반적인 업무 보조를 맡고 있는데, 부서 특성상 펀드 운용 관련하여 국토부나 운용사 분들을 초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일이 잦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인프라펀드팀의 회의에 참관하게 해주셔서, 참석자 간에

오고가는 내용이나 질의를 듣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달드립니다. 회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펀드 운용 구조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프라, 플랜트, 도시개발 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팀 직원분들께 여쭤보면 정말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KIND는 격주 목요일마다 사업검토회의(PRM)을 진행하고 인턴도 참석을 허용해주십니다. 여기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 현황에 대해 사업실 직원분께서 발표 해주시는데, 끝나고 나면 인턴을 포함한 전 직원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며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질문하는 분위기인 덕분에, 전 직원이 사업 관련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유받을 수 있어 조직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 KIND, 복지가 KIND합니다]

KIND는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분들이 원하시는 책을 인당 한도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하고 KIND 전용 책꽂이에 꽂아 보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그 책을 다른 팀원들과 공유하여 지식을 확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기계발에도 큰 도움을 주는 회사입니다. 쾌적한 51층 라운지에서 책을 꺼내서 여의도 뷰를 바라보며 하는 독서는 정말, 달콤합니다.

또 비싼 여의도 물가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 직원분들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사원님, 저랑 같이 점심 드실래요?'라고 제안해주시는 따뜻한 회사입니다. 한번은 처음 뵙는 여자 직원분과 화장실 가는 길에 마주쳤는데, 보자마자 바로 밥 한번 먹자고 해주셔서 감사히 얻어먹은 적도 있습니다. 사원~대리급 직원분들은 인턴들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셔서 더욱 친밀하게 대해주십니다.

사내 소규모 행사도 자주 개최되어 회사 다니는게 참 재밌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임직원들이 다같이 테라리움을 제작해보기도 했고, 다가올 할로윈에는 두부 크럼블을 활용한 머핀 만들기와 한국식 키링 만들기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매우 설렙니다.

[#3. KIND, 정책금융실 직원분들이 KIND합니다]

제가 소속된 KIND 정책금융실 직원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고병욱 대리님께서는 정말 젠틀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인턴을 단순히 일 처리하는 인력으로만 보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일을 설명할 때에도 해야하는 일만 설명하기보다도, 왜 그 일을 지금 해야하는지 등 일의 history와 배경을 함께 알려주시는 덕분에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맡겨주신 일에서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혼내지 않고 직접 수정해주시거나 고쳐야 할 부분을 부드럽게 말씀해주셔서 업무를 하면서 심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KIND에서 관리하는 정책펀드들의 복잡한 구조나 사업 구조도 이해해보라고 여러 자료도 제공해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보면 너무나 상세히 알려주셔서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워 감사함이 큽니다.

이처럼 KIND한 KIND를 강력 추천합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거짓 하나 없는 진실입니다. 펀드가 좋아 지원한 기업이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따스하고 배움을 장려하는 회사 분위기 그리고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 매일이 즐겁습니다. KIND와 한양대가 내년에도 계약을 맺어서, 더 많은 한양대 학우분들이 KIND에서 근무하며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마침)

🏆 장려상

한민우 | 삼성전자DS

- 응모자 정보 : 유기나노공학과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4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CMP 공정의 Defect 개선을 위한 PU Pad 개발

주제 :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나만 알고 싶은 '삼성전자 DS' 하이웹 합격 노하우

삼성전자 DS 소재개발팀에서 장기현장실습을 경험하며, 준비 과정에서 아쉽게 놓치기 쉬운 지점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글은 저의 실제 전형 경험을 바탕으로, 막막함을 줄이고 실질적인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하이웹 사이트 기본 이력서는 형식 확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학교·전공·경험을 사실대로 단정하게 채우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불필요한 미사여구로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후의 삼성전자 별도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에 에너지를 모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큰 실마리는 현장실습 모집공고에 첨부된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의 '직무에서 하는 일'과 '요구 전공지식'은 일종의 출제 범위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키워드를 제 수강 과목·발표·프로젝트와 촘촘하게 연결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소재의 구조–물성 상관관계를 다룬 과제나 실험 보고서가 있다면, 그때 사용한 장비, 실험 조건, 데이터 해석, 얻은 개선 포인트와 한계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세부와 맥락을 풍부하게 적는 것만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했는가보다 왜 그렇게 접근했고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전형은 아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채용 연계형도 아니다 보니, 평가의 잣대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분위기를 풀어 줄 작은 어필 포인트들이 오히려 의미 있었습니다. 안전·화학·품질·오피스 등 간단한 자격증,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 장비 사용 경험이나 학부 실험조교 경험 같은 것들도 빼놓지 않고 기재했습니다. 읽는 분들이 "이 지원자에게 맡겨볼 수 있는 구체 업무"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업무 단위로 번역해 서술하려고 했습니다.

면접은 총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① 직무 면접(실제 근무 부서의 부장님들), ② 임원 면접(해당 부서가 속한 상위 조직의 임원), ③ 인성 면접(인사팀) 순이었고, 체감상 직무 면접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이 단계에서 깊은 문제풀이보다는 관심도, 탐구 방식, 소통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면접 일정이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어 캘린더·알림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발 인원이 1명인 경우도 있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스스로를 과하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은 '절대평가+적합성'의 교집합일 때가 많고, 불합격이 곧 역량 부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저는 미리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하이웹 포지션을 즐겨찾기하고, 수강신청 대안 시나리오와 자격증·어학 계획을 세워 두니, 마음이 안정되고 면접에서도 더 담대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면접에서 대화하듯 편안하게 임하려고 했습니다. 면접관님들의 말씀을 먼저 경청한 뒤, 제 경험을 그 자리의 문맥에 맞게 연결해 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격 후 자리에서 들은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적과 자기소개서도 꼼꼼히 보셨지만, "16주를 함께 지내면 재미있고 잘 맞춰 갈 것 같아서" 선발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습은 '즉시 전력감'만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일할 동료로서 팀 핏, 소통 태도, 기본기를 종합적으로 보시는 자리임을 실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이웹 기본 이력서는 단정하게만, 자기소개서는 엑셀 파일의 키워드–본인 경험의 정밀 매핑–구체적 서술을 핵심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격증과 작은 경험도 빠짐없이 적어 면접의 얼음을 깨고, 면접 3단계를 '함께 일할 사람 검증' 관점에서 준비하십시오. 급통보에 대비해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혹시 결과가 아쉽더라도 스스로를 쉽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궁금해하고 배우며,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어떤 팀에서도 환영 받는 공통 언어였습니다. 이 글이 준비 과정의 불필요한 불안을 덜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시는 데 작은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마침)

🏆 장려상

최진혁 | 지니웍스

- 응모자 정보 : 경영대학 경영학부 / 2021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4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플랫폼 마케팅팀 / 컨텐츠 제작

주제 :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저는 2024년 2학기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 현장실습을 경험했습니다. 평소 실무 경험을 꼭 쌓아보고 싶었기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서는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를 주제로, 저만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예비 인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실습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특정 한 기업에만 집착하기보단,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들을 미리 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지원 마감일을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후기 좋은 곳에 지원하고 싶어 하겠지만, 경험상 그 선택지만 고집하다 보면 기다림도 길고 경쟁도 치열해서 생각보다 기회가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기업은 모두 리스트업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실습 준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입니다. 학교 하이웹 시스템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서류가 사실상 첫 관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막연하게 자신의 장점만 나열하는 실수를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원하는 직무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딱 맞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과거 팀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정리를 맡으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고, 그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직무 설명을 꼼꼼히 살펴, 내가 경험한 것이 실제 회사의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자연스럽게 연결 짓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자신만의 사례를 풀어서 적으면 훨씬 더 눈에 띈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소개서 합격 후에는 바로 면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다양한 질문이 나왔어요. 기본적인 인적성 질문 외에도, 회사의 최근 이슈나 지원 동기, 해당 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 홈페이지와 최근 기사, 소셜 미디어까지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 두면, 실제 면접장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차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습 지원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길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학교 실습지원팀에 연락하는 것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때때로 결과 발표가 늦어지거나 문의할 일이 생길 때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프로세스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떨어져야 다음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 지원 결과를 꼭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첫 지원에서 탈락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실패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자기소개서 문구나 경험 정리 방식에 변화를 줬어요. 그런 과정들이 쌓이니 어느 순간 자신감도 커지고, 합격 소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정말 많은 연계 실습기관이 있어서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은 현장실습에 도전해보시길 격려하고 싶어요. 실습은 단순히 경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 잘 맞는지,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그려가야 할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마지막으로, 후배 여러분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의 인턴 경험이 나중엔 큰 자산으로 남게 될 거예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모든 예비 인턴분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 장려상

박기민 | 스튜디오161

- 응모자 정보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 2021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여름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문명특급 팀 조연출

주제 :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제목: 모르면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영상을 통해 대중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던 내가 스튜디오161, 문명특급 팀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신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르면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건데 일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에게는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실제로 나는 편집 프로젝트 설정을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시퀀스를 생성했다가,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설정을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영상 제작 및 편집은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싱크 작업이 끝나야 컷 편집을 할 수 있고, 컷 편집이 완료되어야 자막과 디테일이 더해지는 2차 편집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두 번 일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주로 첫 번째 단계를 맡았던 나는 실수를 반복할까 불안했고, 그래서 귀찮을 정도로 질문했다. "자막 폰트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폴더는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등 사소한 질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덕분에 기술적인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맡은 영상의 퀄리티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업무가 손에 익기 시작하면서, 질문은 '어떻게'에서 '왜'로 바뀌기 시작했다. “왜 이 음악을 넣으신 거예요?”, “왜 <낭정순 밴드>와 <재쓰비 시즌2>의 촬영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실제 촬영 순서랑 다른데 왜 편집할 때는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낭정순 밴드>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재쓰비>는 은유적으로 일상에 녹여내기 위해,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얻은 답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컷 하나하나에 의도를 담기 위함’이었다. 이를 계기로 시청자를 넘어 제작자로서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쯤, 나의 역할은 일방적으로 답을 구하는 질문자가 아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참여자로 팀에 녹아들었다. 편집본을 공유할 때면 "이 부분이 지루하지 않은지?", "흐름이 이해되는지?"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때로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한 시간 넘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소통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나는 문특 팀과 댄서 팀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스케줄을 안내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주도했다. 모두가 지친 마지막까지도 장비와 소품 정리, 배차 호출 등 현장 마무리의 과정을 책임지며 소통했다.

문명특급 팀에게 '모르면 물어보세요'는 신입에게 하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팀원 간의 관점을 공유하고 콘텐츠의 완성도를 다듬어가는 협력의 언어였다. 현장실습을 마친 지금,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보는 것이 두렵지 않다. 질문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용기 있는 소통임을 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에서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동료로 이끌어준 문명특급 팀 PD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마침)

🏆 장려상

김우진 | 미리디

- 응모자 정보 : 독어독문학과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겨울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레퍼런스를 조사, 기능을 기획하고 배포함

주제 :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 직무를 꿰뚫는 준비, 합격을 부르는 전략

미리캔버스를 만든 기업 미리디에서 프로덕트 매니저(PM) 인턴으로 근무했다.

시장의 30개 이상의 경쟁 서비스를 조사하고 시연하며 특징을 공유했고, 백로그에 있던 신규 기능의 문제 정의·레퍼런스 조사·PRD 작성을 담당했다. 직접 기획한 기능의 성과를 SQL과 Clarity로 추적해 대시보드를 만들고, 오류와 UX 문제를 발견해 개선 기획과 재배포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기획, 협업, 개선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미리디의 자유로운 조직 문화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실습을 얻기까지는 체계적인 준비가 있었다.

PM 인턴은 채용 기회가 많지 않다. 내가 근무했던 팀 역시 단 한 명만 선발되었으며, 경쟁률은 약 6:1이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실습에 합격하기 위해 세웠던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 직무 파악이 최우선

합격의 핵심은 스펙이 아니라 직무 이해도였다.
입사 첫 날, 사수에게 “왜 저를 뽑으셨나요?”라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었고, 똑똑해 보였다.” 이 한마디가 모든 답이었다. 면접에서는 화려한 이력보다 ‘직무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가 중요하다.

나는 해당 직무의 실습 후기들을 인쇄해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이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나랑 잘 맞을까?”를 고민했다.
이런 준비가 자기소개서의 문장 하나, 면접 답변의 뉘앙스 하나를 달라지게 했다.

 #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기업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미리디 관련 뉴스와 기사, 인터뷰를 찾아 읽으며 회사의 방향성과 시장 전략을 파악했다. 또한 “내가 이 회사에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물었다. 단순히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직무가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인지를 확인했다.

 # 면접 준비 전략

나는 면접 준비를 철저히 ‘실전’처럼 했다.
1. 영상 촬영 연습
   카메라를 켜고 자기소개와 예상 질문 답변을 녹화하며 말버릇·표정·시선 처리를 점검했다.
   스스로 영상을 돌려보며 “면접관이 본다면 어떤 인상일까?”를 끊임없이 분석했다.
2. 친구와 모의면접
   친구에게 면접관 역할을 부탁하고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통해 답변 구조를 빠르게 잡는 법을 익혔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그만큼 절실했다. 이 과정이 실제 면접장에서의 긴장을 크게 줄여주었다.

 # 면접관 조사

내가 생각하는 합격의 ‘최종 비밀병기’는 면접관 조사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면접관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미리디는 예외였다. 회사가 면접관 정보를 알려줬을 때, 이름만 보고 넘기지 않았다. 링크드인에서 이력과 글을 살펴보며 어떤 직무관을 갖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면접관의 관점을 고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다. 실제 면접에서 “우리 서비스의 개선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가 쓴 블로그 글에서 언급된 주제를 기반으로 답해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 맺으며

짧지 않은 준비 과정을 거쳐 합격하고, 미리디에서 기능 기획·배포·개선의 전 과정을 경험한 일은 내 커리어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직무와 회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였다. 직무와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인 노력은 면접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면접관은 그 ‘준비의 깊이’를 보고 합격을 결정한다. 결국 합격의 핵심은 나를 화려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준비의 깊이’를 보고 합격을 결정함을 몸소 깨달았다. (마침)

🏆 장려상

진송아 | 미쉐린코리아

- 응모자 정보 : 경영학부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4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반 서포트 (매뉴얼 제작, 고객 만족도 조사 진행, 마케팅 자료 제작 및 분석 등)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쉐린코리아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쉐린코리아가 첫 현장실습이었던 만큼, 저는 출근을 하기에 앞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미쉐린코리아의 조직 문화와 업무 방식은 이러한 걱정을 모두 없애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먼저, 미쉐린코리아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실습생을 다른 사원들과 동등하게 대하는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실습에서 가장 메인으로 맡았던 업무는 프랜차이즈 매뉴얼 제작으로, 미쉐린 본사의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한국 매장에 맞게 수정 및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 저는 문서 작업을 서포트하는 정도의 업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매뉴얼의 총 제작을 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저의 의견이 가장 중심이 되었고, 제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모두 꼼꼼히 의논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점차 업무에 욕심이 생겨 실제 매장에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부담감도 커졌지만, 점차 완성되어가는 매뉴얼을 보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팀장님이 이 책의 버전에 제 이름을 넣어서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말씀해주실 만큼 저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시는 점이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매뉴얼이 제작된 뒤에는 이를 전국의 매장에 배포하고, 변경된 매뉴얼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NPS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설문조사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결과를 분석해보면서 제가 한 일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타 기관에서 실습을 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가장 많았던 불만은 자신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쉐린코리아는 현장실습생 역시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중해주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의 신분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방식만큼이나 미쉐린코리아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기업 문화에 있습니다. 미쉐린코리아는 직급이 아닌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수님이나 팀장님, 심지어는 CEO와 대화를 할 때에도 편안한 환경에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 기업처럼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날의 컨디션과 업무 집중도에 따라 원하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도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외국계 기업답게 휴가 사용도 매우 자유로웠으며, 현장실습생에게도 유연근무제가 적용되어 집이 멀었던 저는 출퇴근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근이 전혀 없는 근무 환경 덕분에 건강하게 현장실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내행사가 많이 열린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잡 페어부터 사원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런치 타임,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 봉사활동까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회사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쉐린코리아 내에서도 저희 타이어모어 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처음 실습을 할 당시 저는 업무에 익숙치 않아 질문을 많이 하였는데, 저희 팀원들은 절대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도 아낌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배려 덕분에 저는 '혼나면 어쩌지'라는 걱정 없이 질문하고 배우며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엑셀 작업에 미숙했던 저는 사수님께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엑셀을 더 배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실습 종료 후 열심히 공부하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쉐린코리아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진로의 시야를 넓히며 생각해보지 않았던 외국계 기업 취업도 진지하게 고려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첫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업무를 배우고 글로벌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쉐린코리아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미쉐린코리아처럼 충분한 배움의 시간을 주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에서 의미있는 현장실습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 장려상

양병현 | 여기어때컴퍼니

- 응모자 정보 : 정보시스템학과 / 2023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여름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BFF 개발팀에서 근무함

주제 : E. 더 나은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여기어때컴퍼니 BFF개발팀에서의 현장실습 경험을 되돌아보며, 미래의 인턴들이 더 나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언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1. 적극적인 소통과 유대감 형성: 협업의 첫걸음

현장실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기술적인 역량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팀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했고,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업무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업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 없이 질문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질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간식을 들고 찾아가 대면으로 소통하며 미리 정리해 간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님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배 인턴들에게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쌓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싶습니다.

2. 명확한 소통 방식의 필요성: 정확한 정보 전달의 기술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며 때로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복잡한 로직이나 데이터 흐름을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이어그램이나 표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 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공유했다면, 팀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오해를 줄여 훨씬 더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명확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은 개발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임을

깨달았습니다.

3. 성장을 이끄는 현명한 업무 태도

첫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이성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업무의 본질은 '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간혹 감정적인 대응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협업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자세와 더불어, 현재 나의 역량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무력감이나 자책감에 빠지는 대신, 제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셋째, 비판적으로 조언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C레벨 시니어분께서 "모든 조언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그것이 현재 상황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용하는 주체적인 자세가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를 대하는 친절한 태도는 팀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결국 일은 '함께' 하는 것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문화가 곧 팀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여기어때 BFF개발팀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기술적 성장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즐거움과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업무 태도를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제안들이 앞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입선작

김우진 | 미리디

- 응모자 정보 : 독어독문학과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겨울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경쟁 서비스 레퍼런스 조사 및 기능 기획 및 배포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실습생을 '팀원'으로 대하는 곳, 미리디>

PM(Product Manager) 직무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디를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다.

이곳은 단순히 실습생을 보조 인력으로 두지 않는다. 실제 팀의 일원으로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실습생은 성장할 수 있다.

1. 주도적이고 투명한 조직 문화

인턴으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OKR-CFR 기반의 애자일 조직 운영 방식이었다.

PM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진행 상황을 팀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주기적인 1on1 피드백을 통해 방향을 조율한다.

물론 정렬(Alignment)의 어려움도 있었다. 회의 맥락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협업자들이 혼선을 겪거나, 의사결정이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미리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과 피드백 문화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수평적 소통이란 완성된 문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체감했다.

2. 기능 기획부터 개선까지, 실무 전 과정 경험

미리디의 가장 큰 장점은 실습생에게도 실제 제품을 개선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나는 신규 기능의 문제 정의·레퍼런스 조사·PRD 작성을 맡았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근거로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야 했다. Hotjar·Google Analytics·Databricks 등을 활용해 정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 인사이트를 보완했다. 또한 SQL을 직접 작성해 로그를 추적하고, Clarity로 클릭 패턴과 이탈 구간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의 오류와 UX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 기획까지 진행했다. 내가 기획한 기능이 실제로 배포되고, 1,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을 보며 PM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미리디는 실습생이 아니라 'PM'으로 일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3. 함께 성장하는 협업 문화

실습 기간 동안 매일 오전 PM 데일리와 스쿼드 회의에 참여했다.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었고,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도서 스터디와 SQL 스터디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확장할 수 있었다. 실습생에게도 식대 지원·자율 출퇴근·원격 근무·스터디비 지원 등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지가 제공되었다. 특히 회사 내 동호회 활동을 통해 협업할 일이 없는 동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일과 고민을 듣고 회사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생겼고, 조직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일을 잘하는 법”뿐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4. 내가 미리디를 추천하는 이유

처음에는 원치 않던 업무를 맡아 실망하기도 했지만,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신뢰를 쌓으며 원하는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PM이라는 직무가 나와 잘 맞는다는 확신을 얻었다. 미리디는 실습생을 동등한 팀원으로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진짜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다. 실무를 배우고, 사람과 일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미리디를 추천한다.

이곳에서는 실습이 아니라, 진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마침)

입선작

우재린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응모자 정보 : 행정학과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대국회 업무, 국정감사 준비, 언론동향 작성, 각종 행정서무 보조, 홈페이지 관리

주제 :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하루의 자소서로 도전한 네 달간의 경험
-인턴 합격 노하우와 나만의 전략-

복수전공·자격증·어학성적·학회·동아리·서포터즈 경험이 전무한 본인은 하루만에 쓴 자소서로 4.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생애 첫 인턴을 여의도 한복판의 고층빌딩에서 하고 있다. 다소 부족한 스펙에도 수월히 합격한 데에는 그간의 나만의 브랜딩 활동과 마인드 컨트롤이 밑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 내가 사용한 두 가지 전략과 한 가지 마음가짐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주변의 모든 환경에 도움받기]

정보나 경험을 얻을 친구도 선배도 없는 내가 스펙을 쌓을 수 있었던 방법은 단 하나, 학교 프로그램을 십분 활용한 것이었다. 신입생부터 막학기인 현재까지 어떠한 학회나 동아리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HY-LU, 라이팅 센터, HY-CDP 등에서 제공한 자소서 특강·NCS·현직자 멘토링·작문 첨삭 등의 프로그램에는 다수 참여했다. 이를 통해 관심사인 공기업 관련 정보와 공기업의 다양한 직무, 직무별 장단점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포털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여러 공모전, 대외활동 알림들도 수시로 참고해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무작정 참여하기도 했다. 지원과정에 있어서는 공모전 원고, 자소서 등을 라이팅 센터의 1:1 튜터링을 활용해 교수님께 직접 내용 첨삭과 글쓰기 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 덕분인지 교내외 공모전에 나가 두 번의 수상을 하고, 10: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권익위원회 2030자문단으로 선발되고, 지역 멘토링 사업에 선발되는 등 나만의 경험과 스펙을 쌓을 수 있었다.

[어떤 경험이든 나만의 의미 만들기]

교내 프로그램 활용으로 스펙을 만들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나를 브랜딩하는 방향으로 자소서를 쓰는 것이다. 요새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김풍 매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웹툰 작가인 김풍이 자신만의 개성적인 요리로 종종 전문 셰프들과의 대결에서 이길 때 나오는 말인데, 이처럼 자소서에는 나만의 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지원한 회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인데, 미리 KIND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하고, 요구되는 직무 능력에 맞게 자소서를 작성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룬 주요 경력은 자문단 활동에서 행정학 전공을 살려 대학교 전자증명서 관련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실제 정책 실현까지 이뤄내 위원장상을 수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성과만 강조하지 않고, 성과 도출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 기반 정책·사업 타당성 분석 역량, 국내외 사례 리서치 역량, 행정·정책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강조해 직무 적합성을 어필했다. 더불어 이러한 소재들에 구체적인 수치와 결과라는 조미료를 써주면 자소서는 훨씬 감칠맛 있는 글이 된다.

나는 자문단 활동에서 24번의 정책현장 참여와 12건의 정책제안, 지역구 멘토링 사업에서 100개 이상의 활동보고서 평가, 홀로 부모님 가게를 운영하며 일 매출 200만 원 이상을 올린 경험 등의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체적 수치는 실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기여했고, 정량적 수치 작성을 위해서는 학교 과제든 대외활동이든 그 과정을 잘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상기한 노력 덕분에 제출 마감 하루 전에 공고를 확인해 마지막에서 세 번째로 자소서를 제출하고도 당당히 선발될 수 있었다.

[때로는 적당히 뻔뻔해지기]

앞서 말한 실질적인 브랜딩 구축만큼 중요한 것이 멘탈 관리이다. 보통 취준 시 수십 개의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다수의 경우 일부만이 서류 합격을 하며 면접 탈락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인지 주변 선배나 지인 중에 탈락을 하나 할 때마다 낙담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자책보다 적당한 뻔뻔함과 남탓하기가 필요하다. 준비할 때는 물론 치열하게 준비해야겠지만 불합격하더라도 빠르게 "여기 아니어도 회사는 많아. 날 놓치면 니들이 아쉽지 내가 아쉽냐?"란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나 또한 서류 제출 후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 다른 외부인턴 모집글을 찾아봤고, 합격 후에도 "그래 나 아니면 누굴 뽑겠어."라는 뻔뻔한 생각을 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행동과 결과가 이끌어진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사회심리학 현상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채찍질만 하기보다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업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시기나 운이 맞지 않으면 본인이 원한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운이 좋더라도 준비 없이는 절대 들어오는 운을 잡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한 노력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내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꼭 남들이 다 가진 스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내외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경험과 경쟁력을 쌓고, 뻔뻔함을 바탕으로 지원하다 보면 분명 본인이 바라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입선작

공현진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응모자 정보 : 경영학부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인사총무팀 / 인사 전반 사무 업무

주제 : E. 더 나은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서로의 기대를 맞추는 현장실습]

현장실습의 성과는 현장실습생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보다 기관과 현장실습생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협력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인사총무팀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학생과 기관이 서로의 기대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실습이 이루어질 때 양측 모두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실습 전 여러 후기를 꼼꼼히 읽으며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회사 분위기는 어떨지를 나름대로 예측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제가 상상했던 분위기와 업무의 결이 달랐습니다. 처음 배정된 일은 제가 배우고 싶던 영역과 거리가 있었고, 그 일을 4개월간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기 와서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해보고 싶은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서로의 기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일은 단순 관리 업무보다는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일이었지만, 대리님께서는 제 관심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한 업무를 맡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업무와 이유를 말씀드렸고, 대리님께서는 그에 맞춰 '행사 기획 및 운영' 업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오존층 보호의 날 행사', '플로깅 행사',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전담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같은 기관에서 함께 실습하던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해 약 8명의 현장실습생이 있었는데, 각 팀의 담당자마다 실습생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실습생에게 행정보조 역할을, 또 어떤 분은 적극적인 기획 참여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관마다

실습생에게 바라는 바가 다르고, 학생마다 배우고 싶은 분야가 다르다면, 그 기대를 미리 공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현장실습은 학생과 기관이 서로의 기대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기관에 기대한 것이 있었듯이, 기관 또한 현장실습생에게 바라는 업무 태도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기대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실습이 시작되면, 학생은 단순 보조 역할에 머물고, 기관은 실습생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장실습의 첫 단계에서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HY-WEP 시스템 운영 측에 각각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제안합니다. 현장실습은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설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첫날 혹은 첫 주 안에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며 본인이 배우고 싶은 업무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전달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기관 측이 실습생에게 기대하는 업무 방향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직접 여쭤보며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짧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어, 실습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Y-WEP 운영 측에도 제안드립니다. 학생과 기관이 실습 시작 전부터 서로의 기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간단한 '기대사항 교환 절차'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현장실습 합격 이후 HY-WEP 시스템에 이번 실습을 통해 배우고 싶은 업무나 기대하는 경험을 입력하면, 그 내용이 기관 측에도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관 또한 실습생에게 기대하는 업무적 역할이나 태도적인 부분을 HY-WEP 시스템에 작성하면, 학생이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도입된다면, 현장실습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서로의 목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기관은 실습생의 역량과 관심사에 맞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장실습은 학생과 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상호 성장의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침)

🏆 입선작

지민선 | 에듀윌

- 응모자 정보 : 중어중문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여름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온라인 사이트 및 콘텐츠 관리 + 이벤트 상품 기획

주제 :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저의 첫 현장실습은 에듀윌 온라인콘텐츠사업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첫 출근날의 긴장감과 설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부서'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고, 실장님·팀장님·파트장님·매니저님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조직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두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스쳤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기에 그 자체로 설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신생아처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많이 봤고, '혹시 내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사실 기획이라는 분야는 제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준비했던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업무 적응이 남들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혹시 내가 답답하게 느껴져서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괜한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불안은 전부 제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에듀윌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바쁜 와중에도 제가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고, 모르는 것을 묻는 제 태도를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른 예의와 적극적인 태도는 실력을 넘어서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요.

제가 처음 맡게 된 큰 업무는 바로 '초보수험가이드 표지 리뉴얼 기획'이었습니다. 기획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막막했습니다. 첫 업무인 만큼 잘 해내고 싶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방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일주일간 끙끙 앓다가 결국 파트장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에듀윌의 신규 캐릭터 '듀공'이 막 만들어진 시기였는데, 파트장님께서 캐릭터를 활용해보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저는 듀공을 활용한 여러 가지 표지 시안을 기획했습니다.

일주일 뒤 팀장님께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칭찬과 함께 세세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특히 "작은 디테일이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말은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이후 디자인팀과의 협업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사에서는 예의와 소통이 곧 실력'이라는 점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한 번은 타 부서에 메일을 보내며 '요청'이 아닌 '지시'처럼 보이는 표현을 사용해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 일을 계기로, 상대의 입장과 일정, 감정을 고려해 부탁하는 법을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손함'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함께 일하기 위한 기본 조건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첫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최종 표지 디자인을 선정하셨다는 이유로,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했던 기획안은 결국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만든 결과물이 허무하게 사라진 기분이었죠. 그런 제게 팀장님께서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무에는 다 이런 좌절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은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엔 서운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내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어떤 일이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나 좌절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후 업무에서도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감정이 아닌 태도로 소통하자'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저는 불안한 실습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에듀윌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기획 업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일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며, 어떤 일이 닥쳐도 "이번에도 배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실습은 끝났지만, 저의 배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마침)

입선작

김찬경 | HD현대중공업

- 응모자 정보 : 기계공학부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PIPE LINE DATA SHEET 매뉴얼 작성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현재 2025-2학기 현장실습을 진행 중이며, HD현대중공업 실습 기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 인턴을 위한 탄탄한 커리큘럼

1-1) 멘토-멘티 프로그램
사회로 처음 나가본 저에게 인턴이라는 역할은 너무나도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멘토님을 배정받으며 회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턴 사원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멘토를 '신중하게' 배정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1-2) 과제 프로그램
사실 인턴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업무가 전혀 없는 인턴십은 실습생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멘토 지정과 함께 과제를 부여해, 실습생이 현업과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며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제를 수행하며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과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서장님이 직접 반려하시고 난이도를 조절하여 재부여해주십니다. 덕분에 인턴들은 부담 없이 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3) 팀 프로그램
저처럼 MBTI가 I 중에서도 I인 사람에게는 동료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지만, 팀 프로그램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퇴근 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팀원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팀 과제를 통해 회사를 조사하고 이해하면서, 회사에 대한 애정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인사팀의 비근 지원으로는 인턴들과 함께 볼링을 치고, 현재는 울산 문수구장에서 HD현대와 광주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 복지

2-1) 무료 숙식 제공
막상 인턴십에 합격하고 나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은 '울산이라는 낯선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울산 근무지에서는 기숙사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주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들끼리 룸메이트로 배정되어 자연스럽게 친목도 형성됐고, 회사와의 거리도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해 지출도 적습니다.
식사는 일반식과 간편식 중 선택할 수 있어, 바쁠 땐 간편식을 들고 출근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2-2) 생각보다 높은 월급
물론 인턴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순한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지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첫 월급을 받아보니, 그 만족감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계약된 월급 그대로 지급되며, 다른 인턴십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도 급여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점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우받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덕분에 회사가 인턴 한 명에게도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3. 분위기

1) 수평적이고 젊은 조직 문화
HD현대중공업 그룹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습을 시작하고 나서 그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분위기를 통해 경력 10년 이상의 책임 엔지니어님들께서도 후배들과 동등한 자세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그런 태도를 가진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2) 인사팀의 세심한 케어
전환형 인턴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퇴근 시간 10분 후 자동으로 PC가 종료되는 시스템 덕분에 무리한 야근을 막고, 인턴들이 건강하게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공문과 안내 메일을 통해 인턴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모습에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며,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인턴십만 수행하고 전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탄탄한 커리큘럼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갈 수 있었고, 복지와 수평적인 조직 분위기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HY-WEP 신청을 앞두고 울산 근무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신다면, 생각보다 회사가 훨씬 젊고 따뜻한 분위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저는 HD현대중공업 실습기관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마침)

입선작

김민지 | 한국일보사

- 응모자 정보 : 사회학과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4학년도 | 2학기, 겨울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문화부 인턴기자(취재, 기사 작성, 행사 지원)

주제 :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제목: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내 장래희망 칸은 늘 '기자'였다. 인턴도 언론사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3학년이 되어 인턴 공고들을 뒤져보다 하이웹에서 '한국일보 인턴 기자 모집' 글을 봤다. 한국일보는 '기자학교'로 불릴 만큼 체계적으로 수습기자들을 교육하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서 기자로의 첫 발을 딛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안일했던 탓일까. 면접에서 "어떤 기사를 쓰고 싶어요?"라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깨달았다. 나에겐 막연히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 어떤 기사를 쓰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는 걸.

그 후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왜 한국일보여야만 하는지.' 답을 찾기 위해 언론 동아리에 들어가 회장을 맡고, 언론 스터디를 하며 기사를 공부했다. 또 실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싶어 방송국 뉴스 조연출로 일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하반기 현장실습 공고를 기다렸다.

두 번째 면접 날.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터라 몇 배는 더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기자가 왜 하고 싶어요?"라는 질문에 6개월간 정리했던 생각을 천천히 말했다. 그렇게 2주 뒤, 다행히도 합격 문자를 받았다.

내가 배정된 곳은 문화부였다. 처음엔 매주 신간을 소개하는 작은 섹션만을 담당했다. 두꺼운 책을 230-240자 안에 요약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좋은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았다. 선배들께선 "무리하지 말아요. 내가 써도 괜찮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최소한 짐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수십, 아니 수백 번을 고쳐 쓴 끝에 '송고' 버튼을 눌렀다. 곧 부장의 데스킹이 시작됐고, 내 글이 분해되는 과정을 손톱을 깨물며 지켜봤다. 마음이 아팠지만, '역시 다르다'고 느꼈다. 선배의 글은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었다. 그때부터 오답노트를 만들어 데스킹 전과 후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점 데스킹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내가 쓴 원문 그대로가 신문에 실렸을 때의 쾌감은 잊지 못한다.

서평에 익숙해질 무렵, 선배들께서 가끔 도움을 요청해 주셨다. 내가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날아갈 듯했다. 처음 맡은 건 인터뷰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전문가를 섭외하는 일이었다. 최소 열 명에게는 연락해야 한 명과 접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렵게 섭외한 인터뷰이에겐 더 깊이 묻고, 더 많이 들으려 했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선배께 보내드렸을 때 “내용 좋네요.”라는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잊게 했다.

그 무렵 목표를 세웠다. ‘항상 선배가 맡긴 것에 1.5배를 하자.’라고. 아침마다 올라오는 기사 계획을 보며 혹시 모를 요청에 대비해 아이템을 공부하고, 인터뷰이 리스트를 만들었다. 인터뷰 한 개를 부탁하면 두 개를, 두 개를 부탁받으면 네 개를 해냈다. 인정받고 싶었다.

그렇게 선배들을 돕던 중, 처음 단독으로 기사를 쓸 기회가 주어졌다. 그 당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으로 문화부가 바빠졌던 시기였다. 써야 할 기사가 많아지자,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부장이 “한강이 운영하는 독립서점 가서 뭐라도 가져와봐요.”라고 했다. 처음으로 혼자 맡은 취재였다. 벅찬 마음으로 노트북을 챙겨 허겁지겁 현장으로 갔다. 도착하자 기자들과 카메라가 빼곡했고 내가 그들과 같은 기자 신분으로 왔다는 게 뿌듯했다. 하지만 뿌듯함을 느낄 새도 없이 취재에 들어갔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끊임없이 물었다. 서점 직원, 인근 가게 사장님, 손님들, 다른 기자들과의 이야기까지 정리해 보내고 나니, 부장께서 “재밌네. 이걸로 기사 하나 짧게 써봐요.”라고 하셨다. 그렇게 순식간에 기사를 완성해 송고했다. 다음 날,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인기 기사’에 내 기사가 떠 있었고, ‘김민지 인턴 기자’라는 바이라인이 붙어있었다. 부장의 “잘썼더라.” 한 마디에 그날은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날을 기점으로 직접 아이템을 발제하며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선배들께서는 내게 피드백을 아끼지 않으셨다. 부장께서는 초고를 프린트 해 손수 피드백을 적어주시기까지 했다. 빨간 줄 가득한 내 글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현직자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기회인지 생각하며 고치고 또 고쳤다. 그 과정을 거치며 내 글은 달라졌다.

6개월간의 현장실습 기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었다. 늘 수용자 입장에서 뉴스를 보던 내가, 기사가 태어나는 전 과정을 경험했다. 취재, 인터뷰, 기사 작성, 데스킹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동시에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깨달았다. 선배들은 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라며 도와주셨다. 그 덕에 나는 주눅 들지 않고 더 배울 수 있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속에서 만난 선배들을 보며 ‘나도 저런 기자가 돼야지’라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다시 정기자가 되어 한국일보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겠다.

(마침)

입선작

곽건우 | 한국리서치

- 응모자 정보 : 경영학부 / 2018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3학년도 | 1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현대모비스, LG전자 대상 글로벌 마케팅 조사업무 지원

주제 :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한국리서치 현장실습생에서 현대모비스 재경직무 신입사원이 되기까지

전문직 시험 포기 후, 24세 복학생인 저는막연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무와 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시스템(하이웹)을 통해 2022년 겨울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한국리서치에서 6개월간 글로벌 조사업무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저의 성장에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커리어 방향성의 발견: '모빌리티'와 '의사결정 지원'

사실 한국리서치 입사 당시에는 막연히 통계 조사에 대한 흥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부라는 배경 덕분에 저는 마케팅 조사 사업부에 배치되었고, 이 부서는 LG전자와 현대모비스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백색가전,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모빌리티 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턴십 기간 중에는 이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출장 기회까지 얻으며, 국내를 넘어선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생생하게 체감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깊은 흥미를 심어주었으며,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제가 만든 조사 결과가 기업 경영진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과 직무 적성을 발견했습니다.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획 및 자문 역할에 매료된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전략적 피봇: 재경 직무로의 확장

한국리서치에서의 경험은 저를 모빌리티 산업과 경영 기획 직무로 이끌었습니다. 실습 종료 후 곧바로 현대모비스 사업기획 직무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고, 저는 좌절 대신 직무 경험을 확장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국내 수입차 딜러사의 채용전환형 인턴(경영기획/관리)에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의 1년여간의 경험은 저의 직무 스펙트럼을 넓혀주었습니다. 비록 이전까지 재무나 회계에 관심이 없었지만, 손익관리, 실적 분석, KPI 관리 등을 수행하며 숫자를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얻은 산업 지식과 기획의 '큰 그림'을, 이곳에서 배운 '숫자 기반의 경영 관리'라는 실무 능력으로 단단하게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 꿈의 기업에 닿는 기적의 첫걸음

한국리서치에서의 산업 지식 및 전략 수립 경험과 수입차 딜러사에서의 경영 관리 및 재경 실무 경험이라는 두 기둥은 저를 모빌리티 산업의 전문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성장의 결과, 저는 마침내 현대모비스 해외법인관리(재경 직무) 신입사원 채용에 당당히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양대학교 하이웹 시스템을 통한 한국리서치 현장실습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모빌리티라는 유망 산업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제가 가진 경영학적 지식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정과 패기 하나로 도전했던 한국리서치에서의 6개월은 저의 커리어 항로를 설정해준 나침반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실습 시스템이 단순한 학점 이수 프로그램을 넘어, 저처럼 방향을 잃은 학생들에게 직무 적성을 발견하고, 실제 산업을 체험하며,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어준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한양대학교 후배들이 하이웹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는 데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침)

입선작

이다은 | 한국투자증권

- 응모자 정보 : 경영학부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퇴직연금 법인영업/마케팅/운영 업무

주제 :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막연함이 확신이 되던 순간>

뚜렷한 진로가 없었기에 폭넓은 경영학을 선택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마케팅, 회계, 인사 등 다양한 전공을 배우며 여러 길을 엿보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오랜 꿈이었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움직이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레 금융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실적인 경제 감각과 실전 경험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렇게 3학년을 마친 뒤, 마지막 학년은 단순히 학점을 채우기보다 금융권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부딪치며 배우고 싶었습니다. 당시 현장실습 공고에는 IB, PB, 법인 영업, 퇴직연금 등 다양한 직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즈음 유독 눈에 띈 것은 거리 곳곳의 퇴직연금 광고였습니다. 취업도 안 한 대학생에게는 낯선 분야였지만 왜 모든 금융사가 이 시장을 주목하는지 강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고, 대형 증권사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 실습에 지원했습니다. 운 좋게 합격하여 연금마케팅부–연금영업1부–연금운영부를 순환하며 근무하게 되었고,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이 핵심 분야에서 저의 첫 실전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여의도역에 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던 내가 이 치열한 현장에 잘 섞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곧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왜 그렇게 많은 금융사가 퇴직연금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었고, 이 큰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 마케팅, 운영 등 여러 부서로 쪼개져 고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된 연금영업1부는 전국 지점 PB/FC와의 협업은 물론, 법인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퇴직연금 제도를

제안하고 유치하는 B2B 중심의 최전방 영업 부서였습니다. 실습 초반, 저는 퇴직연금 사업자 미진입 법인 타깃 선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 리스트에서 우리 증권사와 계약하지 않은 법인을 분류하고, 각 기업의 재무제표, 고용 규모, 업력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와 인사정책이 퇴직연금 유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숫자로만 보던 기업 정보가 실제 영업 자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는 영업 팀장님을 따라 고객 미팅과 현장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잠실의 한 기업 앞 도로에서 퇴직연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며, 근로자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퇴직연금 영업이란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임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닌 '신뢰 형성의 기술'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또한 연금운영부에서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분석과 운용 프로세스를 접하며, 영업 현장에서 제시하는 모든 제안 뒤에는 데이터로 검증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말보다 숫자가 신뢰를 만든다'는 금융의 본질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여의도의 직장인으로 이 치열한 금융 현장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 잠이 많았던 저에게 매일 새벽 5시 반에 기상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곧 일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은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보낸 석 달간의 실습은 마치 3년의 실무 경험을 압축해 배운 듯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더 큰 난관을 마주하더라도, 저는 이 현장 실습에서 얻은 경험을 든든한 발판 삼아 꾸준히 돌파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침)

입선작

이규림 | 스마트그린솔루션

- 응모자 정보 : 건축학부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4학년도 | 1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건축물 인증 컨설팅 및 정기점검(FM) 보조

주제 :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슬기로운 실습생활: 공간의 안전을 배우다

[설계보다 먼저 배우는 '신뢰의 기술']

건축을 전공하며 늘 '공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설계되었는가'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2학년 겨울방학(2022년)에 참여했던 녹색건축·에너지·BF 인증 실습을 통해 건축물의 가치는 디자인보다 먼저 '안전과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의 경험은 더 깊이 있는 인증 프로세스를 배우고 싶다는 목표로 이어졌고,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그린솔루션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체화되었다.

[보고서 한 권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번 실습의 주된 분야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이었다. 교육시설안전인증은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구조적·환경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나는 주로 심사용 보고서 작성을 맡아 엑셀로 심사표를 기재하고 점수를 산출해 결과를 반영했으며, 수백 장의 현장 사진을 정리해 항목별 적합 여부를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 자재와 설비,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공간의 안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다.

보고서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세밀함이 요구되었다. 한 항목이라도 오기입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기에 모든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상사에게 1:1 피드백을 받으며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문서의 논리 구조를 스스로 점검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 특히 한 명의 실습생이 하나의 보고서를 전담해 완성하는 구조였기에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일처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실습 중반에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녹색건축 인증 현장에도 동행했다. 시공 과정에서 크랙을 기록하고 설비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며 심사위원의 평가 과정을 참관했다. 도면과 기준서로만 배우던 내용을 실제 공간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은 전공 수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배움이었다. '책 속의 건축'이 아니라 사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낀 시간이었다.

현장은 늘 분주했다. 오전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면 팀원들이 각자 맡은 인증 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그 속도감에 맞춰 나도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었다. 처음엔 용어와 절차가 낯설어 헤매기도 했지만 선배가 직접 샘플 파일을 보여주며 논리 구조를 설명해준 덕분에 점점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마감 전날이면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 포인트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팀의 진지한 태도를 느꼈다. 보고서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공간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스마트그린솔루션에서의 4개월은 '보고서 작성' 이상의 성장의 시간이었다. 처음엔 인증 절차를 배우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습을 마칠 때쯤에는 세밀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간의 안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한글과 엑셀 활용 능력, 데이터 정리 습관, 논리적 글쓰기 역량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상사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체득했다.

특히 실습 말미 회의에서 팀장님이 "보고서는 건물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오래 남았다. 그 한마디가 내 실습의 의미를 정리해주었다. 나는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의 신뢰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이번 실습은 내게 '공간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정렬해준 경험이었다. 아름다운 공간을 설계하는 것만큼 그 안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앞으로 어떤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이때의 꼼꼼함과 책임감, 그리고 '신뢰를 완성하는 태도'는 내 직업윤리의 기준이 될 것이다.

(마침)

입선작

이재민 | HD현대로보틱스

- 응모자 정보 : 기계공학부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자재 데이터 관리, 로봇 부하 검토 등

주제 : A. 나만 알고 싶은 현장실습 합격 노하우

[힘을 조금 빼도 좋다]

안녕하세요. 이번 현장 실습을 포함해 두 번의 대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자기소개서도 작성해보고 여러 대기업 면접도 보면서 직접, 그리고 주변을 보고 느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현장 실습뿐만이 아닌 취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괄식, 수치 위주로 작성하라 등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소신껏 이야기해보자면 자기소개서에 너무 큰 힘을 쏟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공대 학우분들에 한해 각자 진행하신 프로젝트, 활동들을 나열하셔도 결국 인사과에서 읽는 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나열하고 무엇을 했는지 작성하셔도 이해하시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이야기는 조금 덜어내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왜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해당 직무에 지원하셨는지와 같이 회사와 잘 맞는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작성하셔야 더 읽기 쉽고 쓰시기에도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힘을 빼라고 말씀드렸으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기소개서로 합불이 좌우되지는 않는다입니다. 서류합격을 일단 해야 뭔가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소개서 하나하나에 힘을 쓰시면 여러 기업에 지원하는 데에 있어 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여러 기업에 지원을 하시고 둘째 문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쉬운 단어들로 글을 쓰더라도 읽기 편하게, 눈에 잘 들어오게 쉬운 글을 작성하시면서 서류 합격한 몇 곳의 면접에 가서 더 딥한 설명을 해도 됩니다. 서류 탈락을 했다면 그냥 해당 회사와 나는 잘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기회를 노려보세요.

실제로 위처럼 자기소개서 작성시에 성과를 막 보여주려는 글보다 어느 정도 성과와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지

위주로, 읽기 쉽게 작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확실히 이렇게 쉽게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이렇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겉으로 보이는 열정, 패기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직무 유관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요즘이지만 말하는 자신감과 의지가 밑받침되어야 뽑고싶은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갓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어린 대학생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일 많이 해보고 잘할 것 같은 사람도 맞지만 결국 일이라는 것은 함께 해야하는 것이고 팀, 회사 분위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회사에 관심이 있고 잘 할 수 있는지 말투와 표정, 자세로도 보여주셔야합니다. 물론 내용없이 열심히 하겠다 뽑아달라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잘 할 수 있는지 알맹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때에 비언어적인 요소를 꼭 신경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단한 팁들은 아니죠? 하지만 서류에서 힘을 너무 많이 쓰면 면접에서 쓰는 에너지까지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쉬는 날 여행도 가시고 깨끗한 정신으로 작성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글에 잘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씩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사람인지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닌 나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시고 오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기업에 합격하셔서 인생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마침)

🏆 입선작

김하늘 | DB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부

- 응모자 정보 : 경영학부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환경책임보험부 현장실습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환경책임보험 갱신 업무를 담당한다. 첫 주에는 보험 개념, 전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후 실제 전산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연락해 제출할 갱신 서류(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배출량 기록부 등)를 안내하고, 제출된 현황조사표를 검토해 전산에 업로드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후 증권을 설계하고 청약서 송부 및 회신, 보험료 입금 확인까지의 절차를 통해 계약을 최종 체결한다.

주제 :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나의 새내기 스토리]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나는 미래에 대해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했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그게 곧 직업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경영학과라면 모두 한 번씩 꿈꾸는 마케팅 분야로 활동을 이어갔다.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브랜드 메시지를 스토리로 엮는 일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실제로 콘텐츠를 SNS에 업로드 하고, 누군가의 공감을 보며 성취감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은 과연 내가 오래하고 싶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겼다. 마케팅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결과가 조회수나 클릭 수로만 판단되는 현실 속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 무렵 취업박람회를 통해 뜻밖에도 금융, 특히 보험업이라는 영역을 접하며 생각의 축이 달라졌다. 보험은 단순한 상품이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전체 구간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케팅이 감정의 순간을 다뤘다면, 보험은 삶의 지속성과 회복을 다루는 영역이었다. 단기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는 일로,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무게감이라는 생각이 들어 DB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부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다.

[나의 현장실습 스토리]

환경책임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을 중시하는 구조이다. 즉,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일이다. 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실제로 보험의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에 대해 더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안정이나 직함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고 구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몰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확인한 순간이 있다. 환경책임보험 실무를 경험하던 중, 하나로 묶여야 할 증권이 세 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인허가는 대전광역시청 명의 하나였지만,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세 개 기업이 각자 증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10년 넘게 당연시되던 구조였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보험의 원칙과 리스크 관리의 왜곡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그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일이었다.

각 기업은 "왜 우리가 묶여야 하냐"고 반발했고, 시청은 책임 부담을 우려했다. 그때 나는 각 이해관계자에게 다른 언어로 다가갔다. 기업에는 보장 명확성과 비용 구조의 안정성을, 시청에는 책임 주체의 일관성을, 내부에는 원칙 기반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결국 대전광역시청을 계약자, 세 기업을 공동 피보험자로 묶는 방향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일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됐다.'나는 단순히 금융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구조를 세우는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사람이구나.'

[나의 졸업반 스토리]

현장실습을 마친 뒤, 나는 단순히 보험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금융을 다루는 사람이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보험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장치이며, 그 본질은 '사고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설계'에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장 몰입하는 순간은, 혼란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고 구조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나의 진로를 한층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단순히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더 나은 구조로 발전시키는 일, 즉 상품 기획과 제도 설계 단계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보호 방식을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 사람들의 일상 속 위험을 미리 관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삶이 이어지게 하는 일, 그것이 내가 금융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방식이다.

새내기 시절의 나는 흥미로운 일을 좇았다면,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의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며, 지금의 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언젠가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

(마침)

입선작

박수빈 | 엑스포럼

- 응모자 정보 : 관광학부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4학년도 | 1학기, 여름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전시회 참가업체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부대행사 기획/준비, 행사장 현장운영

주제 : B. 슬기로운 실습생활: 나의 성장 스토리

[화려한 무대의 뒤편, 그 빛을 만드는 사람들]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하며 처음 'MICE'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전시회가 단순히 기업 부스들이 모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전시회는 산업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내게는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점이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기보다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광학을 선택했고, 그중에서도 MICE 산업은 산업 전반을 조망하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네트워킹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끌렸다. 화려한 전시장의 조명보다, 그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손끝이 더 궁금했다. 그 무렵, 한양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하이웹 프로그램을 통해 엑스포럼 국내전시팀 실습생 모집 공지를 보게 되었다. 전시기획 실무를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지원했고, 면접에서는 중학교 시절부터 게임·만화·영화 관련 전시회를 빠짐없이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덕분에 오랜 팬이었던 'SEOULPOPCON' 담당팀에 배정되어, 24-1학기 장기현장실습생으로 시작해 여름계절학기까지 총 6개월간 엑스포럼 국내전시2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막연했던 목표가 현실의 무게로 바뀌다]

처음 실습을 시작할 때 세운 목표는 단순했다. "전시회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이론으로만 알던 MICE 산업의 실제를 배우자." 그러나 이 다짐은 출근 첫날 바로 깨졌다. 많게는 수만 명이 방문하는 전시회를 단 세 명의 팀원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턴으로서 맡은 업무의 양과 난이도는 예상보다 훨씬 컸지만, 그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영역도 넓었다. 내가 담당한 전시회는 'SEOUL FOOD 2024(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SEOUL POPCON 2024(서울팝콘)' 두 가지였다. 전자는 B2B 중심의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 후자는 B2C 중심의 팝컬처 전시회로, 각기 다른 타겟과 운영 방식을 비교하며 산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나는 B2C 전시회인 서울팝콘의

A to Z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참가업체를 직접 유치하고, 부대행사를 기획하고, 홍보까지 주도하는 '작은 기획자'가 되어보자는 다짐이었다. 더 나아가, 오로지 내 힘으로 5개 이상의 부스를 유치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정했다.

[영업의 벽, 그리고 제안의 힘]

내가 맡은 업무는 크게 '아웃바운드 영업 및 현장 영업, 참가업체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부대행사 기획, 현장 운영'이었다. 처음엔 '전시기획'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단순히 재밌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MICE 전시의 핵심은 참가업체 유치에 있음을 곧 깨달았다. 처음 아웃바운드 영업(TM)을 시작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다. 무시당하거나 툭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거절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좌절할 시간에 더 많이 걸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우리 전시회에 참가해달라"는 말 대신, 업체의 신작 발표 일정과 브랜드 특성을 미리 조사해 "우리 전시회가 해당 업체/브랜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렇게 설득의 방식이 바뀌자 응답률이 달라졌고, 결국 내 손으로 첫 참가업체 유치에 성공했을 때, 처음 느꼈던 두려움은 어느새 뿌듯함으로 바뀌었다.

또한 나는 팀장님께 전시품목의 구성을 '게임/만화/영화'에서 '게임콘/코믹콘/라이브콘'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드려보았다. 영화 부문을 라이브콘으로 확장해 드라마, 음악, OTT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하자는 의견이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팝콘의 콘셉트가 한층 넓어졌고, 실제로 신규 기업 문의가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더불어, 부대행사 기획에서도 제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행사 시기가 다가오자 팀장님께서 내게 2030세대 관람객 유입에 도움이 될만한 게스트를 찾아봐달라는 요청을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최근 네이버웹툰 〈가비지타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2사장 작가님을 떠올렸다. 작품의 MD 매출, 팝업스토어 역대 최다 방문객 수 기록, 굿즈 판매량 등을 근거로 제안을 드렸고, 팀장님께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다. 결국 2사장 작가님의 토크콘서트와 팬사인회가 성사되었고, 해당 일정이 열린 2일 차에는 역대 최고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SNS 상에서도 서울팝콘에서 2사장님의 싸인을 받았다는 후기들이 이어졌고,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 행사 종료 후 "수빈 씨의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팀장님의 말씀에서 실습생의 아이디어도 전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다. 그날의 뿌듯함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남았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진짜 성장을 배우다]

엑스포럼에서의 6개월은 단순한 인턴 근무 경험을 넘어,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써 내려간 시간이었다. 매일매일이 예측 불가한 하루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협업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엔 두려움과 낯설음 속에 전화를 걸던 실습생이, 이제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부스를 유치하며, 현장을 이끌어가는 팀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전시는 단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수개월의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었다. 그 속에서 내가 맡은 작은 역할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실습이 끝난 지금도 문득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전시회는 산업의 축소판이다." 그 말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몸담았던 전시 현장은 단순한

산업의 단면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 그리고 열정이 한데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축소된 작은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나는 그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나는 엑스포럼에서 배운 전시기획의 전 과정을 직접 적용해보고 싶어, 새로 완공되는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시기획 제안 공모전에 도전했다. 충북 6대 산업 중 하나인 '뷰티 산업'을 주제로 'OSCO Beauté 2025(오스코뷰떼)'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참가업체 구성부터 마케팅 전략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기획안을 작성했다. 이후 1차 서류와 2차 PT 심사를 통과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현장 경험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엑스포럼에서 보냈던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경험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이번 현장실습은 내게 배움과 도전을 넘어, 나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엑스포럼에서의 여섯 달, 그리고 그 경험이 이어진 오스코뷰떼 2025의 무대까지 — 그 모든 순간이 내게 가르쳐준 건 단 하나였다. "진짜 성장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마침)

👍 기관 추천

안준영 | 삼성전자DS AI Center

- 응모자 정보 : 데이터사이언스학부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물성 예측 AI 모델 inference time 개선 및 웹 개발을 통한 파이프라인 통합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이미 기업에서 1년 정규직으로 재직했던 저는, 큰 기대 없이 출근을 시작한 삼성전자DS의 AI Center에서의 '사내 물성 예측 AI 고도화' 업무를 맡으며 4개월을 마쳤고, 이는 인생에서의 최고의 기억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생해주신 한양대학교와 삼성전자DS AI Center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문화에 건강한 인재가 깃든다]

저는 물질/소재 AI Lab의 연수사원이었지만 정규직, 심지어는 시니어 분들과도 동일하게 대접받고, 존중 받았습니다. 수평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는지가 매우 명확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구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실습 프로그램 차원에서 주어지는 월별 멘토링비에 더해, 부서 회식비까지 더해 주기적으로 팀원분들과 시간을 보내며 친목까지 다질 수 있어 부서 적응도 무척 수월했습니다. 실습임을 벗어나서도, 잘 구비되어 있는 구내식당 및 체육 시설,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등의 복지는 사원들의 사기를 더욱 증진시키는 듯 하였습니다.

이전 기수들의 피드백까지 적극 반영하여, 타 부서(반도체 등) 인턴들과 다같이 모이는 날을 가져, 우수한 동급생들과 다양한 경험 및 커리어 고민을 나누며, 자극과 영감 그리고 즐거움까지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마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 나가며 진로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뛰어난 동기들이 다수 생겼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해당 프로그램을 사내 규정에 적극 녹여내어주신 삼성전자DS의 HR 부서에 감사를 표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발달한 것은, 구성원 서로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문화였습니다. 해당 기관의 경우 매주 금요일마다 기술 트렌드 교류를 위해 음성 AI부터 unlearning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었고, 기술 활용이나 사무용 툴 사용법에 대한 다양한 강연, 세계적인 석학 Joshua Benjio가 이끄는 최상위 연구실과의 연구 교류회까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 또한 업무에 필요한 OLED 소자 관련 지식이 전무하였으나, 첫 2주 동안 다양한 도서 지원, 학습자료 공유,

화학공학과 출신 부서원분의 1:1 멘토링 세션 등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새로운 분야임에도 빠르게 기초 지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삼성을 원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 꼽는 철저한 보안 내규는, 인턴인 저에게는 오히려 제약이 큰 상황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행동 양식을 배우고, 연구 측면에서도 단순 성능 보다는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해석되었습니다. 저 또한, 물성 예측 모델의 최소한의 서버 접근 빈도/시간을 타겟팅했고, 기존 '성능 증진 목표'에서 '추론 시간 단축 기법 고안 및 구현'이라는 과제로 바꾸어 성공적으로 (약 10배) 단축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이유도 하나 생각이 납니다. 바로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학제적 팀은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들이 나오며, 덕분에 팀 단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 경우에, 한 전문분야로부터 새로운 분야로의 지식의 전이 또한 수월하게 이뤄집니다. 제가 속했던 AI Center는 특히나 박사 출신 연구원분들의 비율이 90%에 달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면이 더욱 두드러지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 출신 분들이 LLM 프로젝트를 마치고, 물성 예측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짧은 시간에 완수하고 계셨음에도, 이전의 경험과 각 도메인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어 창의적인 방법론과 모델들을 구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추천 이유를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내가 말로써 증명해야는 노력의 시간들"이 '삼성전자 인턴'이라는 말 하나로 대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이틀을 하나 얻는다는 장점은 피상적이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소속된 집단의 이름의 힘이 실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해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도 우수한 학교로서 학계에서는 명성이 뚜렷하나, 더욱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산업계에서 가지는 삼성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나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바꾸고, 그로부터 후배님들께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에 주목하시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실습을 마치고 난 뒤 본인에게 생긴 다학제적 사고, 넓은 시야, 향상된 기준 등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실 것이라 장담합니다. 삼성전자DS에서의 기회를 시작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No.1 인재로서 우리 한양인이 널리 활약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기관 추천

조남경 | 삼성전자 DS부문

- 응모자 정보 : 융합전자공학부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Verilog와 System Verilog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DS부문 S.LSI 사업부 Panel DDI 개발팀 장기현장실습 후기]

4학년 1학기, 삼성전자 DS부문에서 진행된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회로설계 직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학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직접 적용해보며 진짜 엔지니어로 한걸음 다가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습을 마친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어디 실습기관이 가장 추천할 만해?"라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이곳을 꼽을 것입니다.

[실습에서 맡은 주요 직무 및 개인 성장]

제가 담당한 주요 직무는 회로 설계 및 검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Verilog를 이용해 간단한 회로를 구현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 제품 단위의 설계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특히 System Verilog를 이용한 설계 검증 환경 구성과 자동화 테스트는 처음 접해보는 영역이었고, 현업 선배님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빠르게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설계 코드와 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 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코딩 스타일과 실무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던 점도 매우 뜻깊었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 마인드를 배우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무에서 요구되는 엔지니어로서의 사고방식과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 중에는 KAIST, 고려대, 성균관대 등 타대학 학생들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및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데이터 전처리/후처리를 통해 번역기 개선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성과로 우수 프로젝트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팀원들과 협업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졸업 후에도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들을 만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삼성전자만의 특별한 조직문화와 복지]

삼성전자에서의 실습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직무 경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조직문화와 복지 시스템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조직문화는 상상보다 훨씬 수평적이고 유연했습니다.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선배님들이 먼저 의견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기술적 질문을 던지면 언제든 시간을 내어 설명해주셨고, 실습생을 단순히 '보조 인력'이 아니라 '잠재적인 동료'로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복지는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 자율 출퇴근제를 통해 아침형, 저녁형 인간 모두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 기숙사는 아파트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료 야식, 헬스장, 사우나, 탁구장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삼시세끼 제공되는 사내식당은 메뉴도 다양하고 품질도 매우 뛰어났으며,
- 주말에도 운영되는 셔틀버스는 교통 편의성까지 확보해주었습니다.
- 실습 기간 중에는 팀 단합 차원에서 에버랜드에도 다녀왔는데, 팀원들과의 유대감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습 생활을 하며 단지 '일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현장실습, 강력 추천하는 이유]

처음 실습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이 경험이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회사는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의 4개월은 그런 생각을 단번에 바꿔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고,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장기현장실습은

- 실무 중심의 회로 설계 경험
- 우수한 멘토들과의 교류
- 타학교 학생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 탄탄한 조직문화와 복지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진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이 글을 통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현장실습은 단순한 실무 경험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검증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협업한 이 경험은 저에게 실력과 자신감을 넘어, 커리어의 방향까지 알려준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좋은 회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에서의 현장실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앞으로의 길에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침)

👍 기관 추천

김유진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 응모자 정보 : 독어독문학과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공사 내 개발사업 현황 업데이트 및 국회 요구자료 대응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201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해외투자개발 전문기관입니다. 해외 사업발굴부터 사업개발, 금융지원 및 운영 ·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총괄실에서 실습을 하며 단순한 사무 보조를 넘어 공기업 실무현장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KIND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지 'KIND']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최고의 선택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사무 보조를 넘어 실질적인 공기업 실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응하고 타 부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며, 실제 사업 운영 과정 어떤 포인트에서 정책적 질의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0월에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실습할 수 있었기에 국정감사에 대응하는 공기업의 업무현장 또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현장실습생들의 경우, 직접 국회로 가 문서를 제출하고 오는 등 국정 대응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생생한 현장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들과의 만남의 장소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연간 최대 행사인 GICC(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에 참석하여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 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국가기관들과 함께한「해외수주실무협의회」, 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정례협의회」에서 자금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 및 실무 참여를 통해 공기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어깨너머로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이렇듯 타 기관에 비해 열람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넓으며, 공식 행사 참여 기회 또한 다양합니다.

[해외/개발사업/정책금융,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KIND']
KIND는 해외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답게 글로벌 환경에서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실제로 GICC 행사에서는 몽골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해외 정부 관계자들을 안내하며 영어로 소통했고, NDA 및 MOU 번역 업무를 맡아 해외협력 문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격주로 열리는 사내 PRM(사업검토회의)에 참석하며 현재 공사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정책적 성과, 리스크 관점에서의 브리핑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운영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 수주 지원을 목표로 조성된 펀드 구조에 대해 배우며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키워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추후 어떤 진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움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유일하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공부하며 일할 수 있는 'KIND']
KIND의 가장 큰 장점은 실습생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자분들은 제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항상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MOU 관련 문서 번역 작업을 마친 후, 담당자께서 일일이 주석을 달아주며 문장 구조와 협약 용어의 의미, 향후 번역 시 유의해야 할 부분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KIND는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공기업이기에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사기업에서 이직해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에게 공공과 민간 기업의 실무 경험과 커리어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진로 멘토링의 장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직장인의 삶을 체험해볼 수 있는 'KIND']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여의도를 IFC건물 51층에서 바라보는 매일의 아침은 저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부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가를 움직이는 금융공기업들과 자본의 흐름 중심에 서 있는 수많은 증권사들이 밀집한 국제금융로를 출근길로 오가며 새로운 하루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KIND는 이름처럼 kind한 실습기관입니다. KIND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실습생들에게 응원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아낌없이 줍니다. 공공기관의 실무 현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KIND에서 시작하세요!
(마침)

기관 추천

이상익 | 한국맥도날드

- 응모자 정보 : 데이터사이언스학부 / 2021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겨울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맥도날드 크루 및 매니저 계정 생성 및 관리, 보안 메일 관리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맥도날드에서 2학기 장기현장실습을 진행 중인 데이터사이언스 3학년 학부생입니다. 저는 맥도날드 technology 부서에서 인턴을 진행중인데요, 한국맥도날드의 테크 부서는 크게 비지니스 테크와 서비스 테크로 나뉩니다. 비지니스 테크팀는 맥도날드 내부 보안,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체 웹 관리, 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비스 테크팀은 매장에서 운영되는 pos, 키오스크 등 매장 중심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비지니스 테크놀로지 팀에 속해서 (GAM 크루 계정과 매니저계정 관리) 및 (글로벌 팀 보안 메일 점검 및 회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전세계에 지점을 둔 글로벌 회사로, 한국맥도날드도 글로벌과 긴밀히 소통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GAM도 global account manager의 약자로, 각 맥도날드 지점들에서 근무하는 크루와 매니저들이 mcampus라는 앱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계정을 생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도 글로벌 지침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 메일이 글로벌 incident팀에서 날라오는데, 글로벌과 소통해야하는 일들은 모두 영어를 활용하여, 영문 메일 쓰는 능력을 정말 많이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McData, Smartstore와 같은 맥도날드 매장 데이터 관리 웹페이지가 한국 맥도날드에 따로 있습니다. 일 마감 데이터, 고객 방문 수, 매출 데이터와 같이 각 매장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있는지를 웹페이지를 탐험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수평적입니다. 팀장님 밑으론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00님으로 부르며, 자율 좌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모션데스크석, 듀얼모니터석, 창가석 등 다양한 자리에서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좌석제이다 보니 도시이름으로 붙여진 10개 이상의 회의실 중 한 곳을 예약해 팀미팅을 진행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해 jira/confluence라는 협업 툴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지로는 매월 20% 직원 할인 쿠폰 10장을 앱쿠폰으로 지급해주며, 월 6만원까지 페이백이 가능하여 모두 6만원을 꽉 채우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쿠폰 6만원어치를 주변인께 매달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월 최대 8회 재택근무가 가능하여, 금요일엔 본사에 출근하는 인원이 10%도 안될 때가 많습니다. 유연근무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일찍 출근해 일찍 퇴근할 수 도 있고, 한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면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신메뉴 시식회도 참석하여, 대중의 입맛으로 메뉴 평가도 진행하는 기회도 있어 신메뉴도 먼저 맛보고 상품도 탈 수 있었습니다! 매 달 진행되는 타운홀(회사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소식을 전하는 전직원 대상 미팅)에서 새로 입사한 직원들을 축하해주는 이벤트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하고 2주 뒤에 푸르메 소셜팜 봉사활동도 다녀왔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일하시는 토마토 농장에 가서 맥도날드 직원분들과 토마토 잎 제거, 토마토 세척도 하며 햄버거 기부활동을 하고 왔는데, 이곳에서 동기분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맥도날드 본사 직원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맥도날드 본사는 신입보다 경력직 직원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까워진 본사 직원분들과 점심약속을 잡으며, 사회생활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도 많이 전수 받았습니다. 예로 "인턴생활을 하면서 배워나가야할 것들"이나 조직문화를 미리 경험해보며, 상황별 대처 방법 등 인터넷이나 책으로는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비록 맥도날드는 IT회사는 아니어서 전문적인 IT 회사의 업무를 기대하고 오시면 괴리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IT 협력업체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인턴 신분이라 프로젝트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순 없었지만, 글로벌 기업이 운영되는 시스템과 IT 부서 조직의 일처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마침)

👍 기관 추천

김경이 | (KT) 나스미디어

- 응모자 정보 : 사학과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겨울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나스미디어에서 저는 데이터 기반의 광고 운영 및 시장 분석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광고주의 효율적인 캠페인 진행을 위해 경쟁사 광고비, 매체별 집행 현황, 트렌드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광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CTR, CPC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차기 전략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더불어 타깃층과 시장 트렌드를 고려해 콘텐츠 및 프로모션 아이디어 기획에도 참여하며, 실무 전 과정에서 마케팅의 기획–운영–분석 사이클을 경험했습니다.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마케터를 꿈꾸는 인문계 학생으로서, 저는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상경 전공자이자 문사철 계열 학생으로서 '내가 과연 마케팅 실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학회 활동을 통해 전략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내는 경험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게 나스미디어에서의 현장 실습 경험은 마케터의 길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해준 '현실의 교실'이었습니다.

나스미디어는 KT그룹 계열의 대표적인 미디어렙사(광고주와 대행사를 매개하여 광고를 운영하는 곳)로, 다양한 산업군의 광고를 기획·운영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인문계, 비상경계 학생에게도 열린 문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무 중심의 교육과 배려 깊은 팀 분위기 덕분에, 전공에 관계없이 '마케팅 실무'를 직접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영학 전공이 아닌 저 같은 인문계 학생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습 초기에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사수님의 꼼꼼한 피드백과 실제 캠페인 운영 경험을 통해, 데이터가 마케팅의 언어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게임 및 뷰티 업종 광고주의 캠페인 효율을 관리하며, 광고비 집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내 경쟁사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노출수, 클릭수, CTR(클릭률), CPS(전환비용) 같은 지표를 다루며, 단순히 수치를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광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결과 광고주에게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었을 때의 성취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광고 캠페인의 데일리 리포트를 직접 작성하며, 광고가 기획·집행·분석되는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스미디어는 대형 광고주를 다루는 만큼 다루는 광고비 규모도 크고, 그만큼 높은 정확성과 꼼꼼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보고서 하나를 작성할 때에도 수많은 수치와 예산을 검토해야 했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다루는 태도'와 '세밀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낸 광고 아이디어가 실제로 채택되어 캠페인에 반영된 일이었습니다. 인턴 신분이었지만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피드백해주는 분위기 덕분에, 스스로도 광고인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실습을 넘어 제 안의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나스미디어는 단순히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젊은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조직이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실무를 경험하기 전에는 '마케팅'이란 단어가 막연히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일로만 느껴졌다면, 나스미디어에서의 시간은 그것이 철저히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협업' 위에 서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케팅은 감이 아니라 근거로 소통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제 전공인 인문학적 사고력과 탐구력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현재 저는 제일기획에서 PR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 면접관이 가장 주목한 부분이 바로 '나스미디어에서의 6개월 현장실습 경험'이었습니다. 실무에서의 데이터 분석 경험과 광고 캠페인 운영 능력, 그리고 팀 내 협업 경험이 실제로 현업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나스미디어에서의 경험이 제 진로의 확신이자 자신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비상경 전공자에게 마케팅은 종종 높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스미디어는 제게 그 벽을 넘게 해주는 '디딤돌'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상경계열 학생뿐만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열린 기회의 장입니다. 실무 중심의 배움, 데이터 기반의 사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현해볼 수 있는 환경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무스펙인 우리들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동아줄'입니다. 그리고 나스미디어는 그중에서도 유난히 단단하고 빛나는 황금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아줄을 꽉 붙잡은 덕분에, 막연했던 꿈을 '현실의 경력'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상경 전공자라는 약점을 넘어 자신 있게 마케팅 현장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경험 덕분입니다.

마케터를 꿈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이라면, 나스미디어를 주저 없이 추천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실습 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기관 추천

맹성재 | 중앙엠이씨

- 응모자 정보 : 기계공학부 / 2021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여름학기,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공기조화설비 및 제연설비 T.A.B를 위한 현장 방문 및 도면 파악, 보고서 작성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저는 책이나 전공 수업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중앙엠이씨라는 기관은 준공 현장의 공기조화설비나 제연설비가 잘 작동되는지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로, 사무실에만 머무는 실습이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공항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원청업체로부터 건물의 다양한 도면을 받고, 설비가 잘 작동될지, 설계자가 설비 기준에 맞춰 설계를 잘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을 먼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고, 공기조화설비나 제연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보고 온 뒤에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출장지를 다니며 건물의 안정성을 높여가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이는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넘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어떻게 문서로 이어지는가'를 몸소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설계자, 현장 작업자, 감리사, 원청업체 등 여러 관계자가 모여 일정과 작업 순서를 조율하는 회의에 참석하며,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적인 업무 용어나 보고 체계가 낯설었지만,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건물의 다양한 도면을 받으면,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지와 현장마다 상이한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알며 점점 실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업무보조가 아닌, 프로젝트의 흐름을 이해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체계적이고 따뜻한 조직문화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원분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습생의 의견과 의도를 존중해 주었고, 현장 출장 시에도 위험 요소와 안전 수칙을 꼼꼼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저는 현장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하며, 팀워크 속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습생도 하나의 팀원"이라는 인식이 강해, 업무 후 피드백을 통해 제 보고서의 작성 방식에서 수정해야 할 점과 현장에서 갖춰야 할 태도도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현장실습 기간의 절반이 지났는데, 처음엔 막연했던 보고서 작성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프로젝트 기록'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 파악-현장 방문-측정 기록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 작성 과정을 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이 실습 기관은 단순한 현장실습을 넘어, '일이 돌아가는 체계'를 배우고, 사람과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실습으로 회사 내의 보고 체계와 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배웠고, 앞으로 어떤 직무를 맡더라도 빠르게 현장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을 다음 실습생에게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마침)

👍 기관 추천

이종연 | 대한상공회의소

- 응모자 정보 : 국제대학 국제학전공 / 2023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여름학기,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고용노동부 K-Digital Training 사업 운영 및 행정지원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지난 세 달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K-Digital Training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TF팀에서 현장실습을 했어요!

처음 출근하던 날은 솔직히 좀 떨렸어요. 제가 04년생으로 회사생활을 하기에 어리기도 하고 첫 인턴이었거든요. 이름에 "회의소"가 들어가 있어서 분위기도 엄청 딱딱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주임님들이 편하게 하라고 해주셔서 긴장이 풀렸어요. 그때부터 '아, 여기선 진짜 많이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행정지원 및 Team-Mate 멘토멘티단 운영 지원이었어요. 팀메이트는 KDT 수료생과 훈련생이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데, 선발 공고부터 면접, 활동 관리까지 거의 전 과정을 함께했어요. 멘토들이 멘티에게 조언을 해주는 걸 옆에서 보면서, KDT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걸 직접 느꼈답니다. 특히, 멘티 중 한 분이 항상 감사하다고 말해주셨을 때 진짜진짜 뿌듯했어요.

행정업무도 꽤 다양했어요. 훈련생 참여 확인서 발급, LMS 관리, 출결 데이터 입력, 훈련장려금 계좌 확인 같은 일을 주로 했는데, 처음엔 단순 입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틀려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항상 세 번씩 확인하며 처리했어요. 특히 포스코 과정 수기출석부를 직접 입력할 땐, 손으로 쓴 출석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수고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신뢰를 만든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 관련 업무도 많이 했어요. 대학 홍보물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인스타그램 피드 기획안을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공식 계정에 내가 만든 피드가 올라가면 기분이 어떨까?" 하면서 계속 수정했는데, 다음 주에 진짜 올라왔을 때는 혼자 속으로 엄청 뿌듯했어요 ㅎㅎ 좋아요도 70개나 받았답니다. 또, 사내 홍보 영상 공모전에도 참여해서 팀원들이랑 기획안 짜고 촬영 아이디어도 냈어요.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과정이 정말 값졌습니다.

가끔은 외근이나 행사 지원도 있었어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렸던 Team-Mate OT 지원이라든지, 학여울 역에서 열린 HRD 컨퍼런스, 을지로 입구에 있는 하나은행 회의 등 정말 다양한 현장을 다녔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현장은 진짜 생생한 배움의 공간이구나 싶더라고요. 서류나 보고서로만 보던 교육 사업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행정도 결국 사람 중심의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3개월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했죠? ㅎㅎ

제가 이번 대한상공회의소 현장실습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정확함과 주도성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확인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작은 성취가 쌓이니까 점점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특히, 제 교육을 맡으신 선임님께서 정말 잘 챙겨주셨는데 항상 다양한 걸 해보라고 말씀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제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셔서 더 재밌고 긍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려 항상 저를 챙겨주신 지수 선임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한상공회의소를 무엇보다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팀장님, 선임님, 주임님들과 함께 '진짜 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 행정부터 홍보, 행사 운영, 대외 협력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현장실습 하기 전에는 제가 진짜 회사 생활에 안 맞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회사 다니는 것도 저한테 정말정말 잘 맞고 재밌더라고요. (+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조건 6시 칼퇴랍니다!! 😁)

남은 세 달의 실습도 이곳에서 이어서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있을 일들이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실습기관,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마침)

👍 기관 추천

유승연 | 신성통상

- 응모자 정보 : 경영학부 / 2021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여름학기,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온라인MD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신성통상에서의 실습은 단순한 현장 체험을 넘어, 실제 패션 유통 산업의 흐름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실습을 통해 기업이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산업 환경 속에서 체득할 수 있었던 매우 실질적인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성통상은 실습생이 실제 업무를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닌, 실무 담당자로서 외부몰 기획전 세팅, 상품 관리, 재고 파악,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습생이 실제 온라인몰 운영의 흐름을 이해하고, 업무 전반에 걸친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몰 기획전 세팅 과정은 신성통상의 실습 중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하나의 기획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즌별 상품 전략, 프로모션 기획, 시각적 디자인 등 다방면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이 단순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 소비자와의 '소통의 과정'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정체성과 소비자 트렌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자사몰과 외부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기업 내 유통 구조의 효율성과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재고 현황 조회, 출고지 매핑, 상품 묶음 구성 등의 과정을 통해 물류와 판매 관리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더불어 자사 백오피스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등록, 정보 수정, 기획전 관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온라인몰 운영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달 진행되는 행사의 브랜드별 현황을 취합하고 예상 매출을 분석하는 업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감각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치를 바탕으로 한 근거 있는 분석이 기업의 전략 수립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실무적인 분석력뿐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성통상에서의 실습은 단순히 업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관리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담당자분들께서 실습생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업무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단순한 인턴이 아닌, 실제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성통상은 실습생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무 중심의 교육과 친절한 피드백, 그리고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 덕분에 단기간에도 빠르게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패션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성통상은 실습기관으로 매우 추천할 만한 기업입니다. 실습생이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배움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향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신성통상은 실습생에게 최고의 배움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신성통상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침)

기관 추천

김영훈 | 한국생산성본부

- 응모자 정보 : 국어국문학과 / 2020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업무 인수인계, 교육 현장 운영 및 보고서 작성, 역량평가 진행 및 보고서 작성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역량개발1센터 현장실습 후기

한국생산성본부 역량개발1센터에서의 실습은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HRD 현장을 실제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HRD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여러 교육과 평가 현장을 함께하며, 기획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었다.

실습 초반에는 조직 구조와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제안서나 보고서 작성법, ERP 시스템 사용법을 배우며 행정 업무의 기본기를 다졌다. 처음에는 서류 처리나 일정 관리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맥락을 고려해 기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은 실습의 큰 전환점이었다.
리더십 교육, 역량평가, 기관별 직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육 운영이 단순히 일정 관리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지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특히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판단과 협업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력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출장이 잦은 환경에서 여러 과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험도 의미 있었다.
하나의 교육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일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고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어떤 업무든 체계적인 준비와 명확한 소통이 있어야 원활히 운영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계획보다 변수가 더 많았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대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배웠다.
강사 섭외, 행사 운영, 협력업체 일정 조율 등 다양한 외부 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전달과 신뢰 구축이 업무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작은 연락 하나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문서 하나를 공유하더라도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이 실무자의 기본이라는 점을 느꼈다.

6주차가 지나며 잠시 숨을 고르니,
그동안의 시간이 단순한 '실습'이 아니라 '현장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일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업무의 의미와 나의 역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무 감각, 그리고 사람과 협업하는 태도를 체득한 것이 이번 실습의 가장 큰 수확이다.

지금은 연휴를 맞아 잠시 지난 6주를 되돌아보며 정리하고 있다.
아직 실습은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생산성본부 역량개발1센터는 실습생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기관이다.
HRD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마침)

기관 추천

허신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응모자 정보 : 심리뇌과학전공 / 2021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1학기, 겨울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GS인증을 위한 소프트웨어품질 시험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추천합니다.

우선 TTA 현장 실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인턴 직위로 본사인 분당 또는 상암동에 있는 사무실 중 한 곳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합니다. 제가 인턴했을 때는 인턴 9명 중 5명이 분당, 4명이 상암동에 배정받았습니다. 물론 분당과 상암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상암은 방송국 쪽이라 사무실 층에 대본 리딩 장소가 있어 연예인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턴은 시험원과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직무를 수행합니다. '시험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즉 GS 인증시험은 보통 한 명의 PL(Project Leader)님과 1~2명의 시험원으로 진행됩니다. 인터넷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GS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라고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인증은 보통 TTA에서 해줍니다. 실습기간 6개월 동안 약 6개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게 됩니다.

TTA와 GS 인증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 간 합의가 완료되면 시험합의서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시험 시작이 곧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메일을 받으면 시험합의서 요구사항에 맞춰 시험 장비를 셋팅합니다. 기업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시험을 시작합니다. 보안 요구사항을 모두 맞췄는지, 자원 사용량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매뉴얼에 있는 기능이 존재하고 설명이 적절한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동안 결함이 없는지 등을 시험합니다. 결함리포트를 작성하고 기업에게 송부합니다. 이 외에도 테스트케이스, 기능리스트, 형상 캡처 등 많은 산출물을 작성합니다.

조직문화를 설명하기 전에 사무실과 시험실 구조를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선임, 책임 등의 직급을 가진 PL님들이 계시고, 시험실에는 시험원분들이 있습니다. 인턴은 시험원분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점심식사는 주로 시험원들끼리, 특히 같은 인턴들끼리 먹습니다. 사무실과 시험실이 분리되어 있어 직속상사격인 PL님을 자주 보지

않고, 소통은 텔레그램으로 합니다.

제가 TTA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턴 기간 동안 정말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그만큼 결과도 뚜렷합니다. 게다가 시험원은 품질시험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끝나면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저번 제 인턴 동기는 자신의 업무 PC에 개발환경을 구축해 개발 경험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QA 직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개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QA 직무를 희망해야만 실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턴 면접 때 대부분이 QA 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PL님들도 이 6개월 동안 QA를 통해 개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개발할 때 어느 부분에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가 멈출 수 있는 상황, 어떤 보안 공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지 등을 실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개발 툴 소프트웨어 제품들도 많아 최신 소프트웨어 트렌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STS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해주어 실습 기간 동안 자격증 하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 주에 듣는 강의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장점으로는 인턴도 명함이 나온다는 점, 연차 48시간이 주어지며 결재 없이 PL님께만 말씀드리고 엑셀 시트에만 기록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TA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전화 스킬도 기를 수 있습니다. GS 인증 특성상 상사, 동료, 상대 기업과 협업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와 이메일이 잦습니다. 또한 공식 보고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서 스킬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특히 결함리포트는 상대 기업에 보내는 공식 문서라 익숙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마침)

기관 추천

김명준 | 포스코

- 응모자 정보 : 자원환경공학과 / 2019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4학년도 | 여름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제선 공정 개선과제 수행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저는 포스코에서 한 달간 현장학습 인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밀도 있는 그 기간은 제 전공 공부와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고, 동시에 동기들과의 즐거운 추억까지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실습기관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장점을 네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취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은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포스코의 현장학습 인턴은 단순히 '견학' 수준이 아니라 실제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업무 과정을 가까이서 접하고, 작은 업무라도 직접 맡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소서나 면접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여 향후 진로 선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인턴 경험을 계기로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 및 소재 산업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진로를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철강 산업 전반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강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만으로는 제철소의 규모나 실제 공정 과정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저는 고로, 제강, 압연 등 철강 생산의 전 단계를 직접 보고 배우면서 '철이 만들어지는 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공정에서 쓰이는 최첨단 설비와 안전 관리 체계를 보면서 포스코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교과서나 논문에서 얻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학습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동기들과 함께 포항과 광양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장학습 인턴은 혼자가 아니라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며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쌓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진지하게 배움에 몰두하지만, 퇴근 후나 주말에는 포항의 유명한 해수욕장이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여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양 역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지역 문화를 접할 수 있어, 단순한 실습을 넘어선 풍부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학업과 진로 고민으로 바쁘던 대학 생활 속에서 이런 여유와 즐거움은 큰 활력이 되며, 동시에 평생 이어갈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실제 업무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학습 인턴은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실제 부서에서 주어지는 작은 업무를 맡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정규직 직원들이 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문서 정리, 데이터 분석, 현장 점검 보조 등 실제로 돌아가는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직장인의 하루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회사에 다녀왔다'는 수준을 넘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덕분에 졸업 후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필요한 역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포스코 현장학습 인턴은 취업 경쟁력을 쌓을 수 있고, 철강 산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기회입니다. 짧은 한 달이었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지식 이상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에 있어 값진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침)

👍 기관 추천

백인혁 | 삼성전자 DS부문 S.LSI사업부 Modem개발팀(1)

- 응모자 정보 : 융합전자공학부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멘토님이 아키텍쳐를 정해주시고, 그에 따른 hw(Mini Modem에 들어가는 Modem vector processor)를 RTL로 설계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DS부문 S.LSI 사업부 장기현장실습을 강력 추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DS부문 S.LSI 사업부 장기현장실습을 강력 추천하고 싶어 후기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5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지원 하기 전부터, 붙고나서 출근 전 고민이 되었던 것들, 붙고 나서 경험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궁금하여 하이웹 후기는 몰론, 인터넷에서 후기를 모두 검색하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적혀져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분명 많은 학우 분들이 저처럼 삼성전자 DS부문 S.LSI 사업부 장기현장실습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보 제공과 추천을 하고 싶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웹을 지원 하기 전 고민 – 학교 수업]
실습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학기의 수업을 못 듣게 되어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도 분명 많은 수업들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 수업은 노력하면 독학도 가능하고, 언제든 들을 수 있지만 장기현장실습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수 있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현업에서의 이론, 설계에 대한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기회가 될 때 마다 지원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DS부문 S.LSI 사업부의 장점]

먼저 첫번째로 제일 큰 장점은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 장점은 뛰어난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야기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로가 같은 타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도체와 반도체 산업쪽 지식과 관련해서 한번 더 궁금함을 가지게 되고 집에 와서 더욱 공부해보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들이 쌓여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장점은 타 사업부와 달리 LSI 사업부는 2주마다 따로 모여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부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같이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동기들끼리 많이 친해 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업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경험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장점은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줍니다. 게다가 너무 맛있습니다. 아침 점심은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식당에서 먹어도 되고, 혹은 먹지 않고 편의점 처럼 제공되는 음식을 골라 집에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돈 쓸 일이 전혀 없고, 집에서도 오늘 저에게 뭐 가져왔냐고 항상 물어보셔서 뿌듯함도 느껴집니다.(ㅋㅋ)

다섯번째 장점은 현업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회로설계 능력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융합전자공학부는 유일하게 회로설계 직무를 꿈 꿀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회로설계 직무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디지털 회로설계를 프로젝트를 진행 할 때는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점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하드웨어를 설계하면서 배정된 멘토님이 꾸준히 봐주시는데, 설계한 코드가 플립플롭 개수에 따라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bit 설정에 따라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clk gating 여부가 전력을 얼마나 낭비하고 소모하는지 등을 최대한 따져가며 꼼꼼히 피드백을 해주시고, 현업에서의 설계에 있어서 많은 팁도 주십니다. 또한 눈과 귀로 임직원 분들이 협업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머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무리]
삼성전자 DS부문 S.LSI 사업부에서 장기현장실습을 두달 째 진행하고 한달 반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취업도 어렵고, 인턴 경험을 쌓기가 정말 힘든 시기인데, 삼성전자 DS부문 S.LSI 사업부 장기현장실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후기를 보시고 망설임 없이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 기관 추천

김지민 | 삼성전자 DS부문

- 응모자 정보 : 바이오메디컬공학과 / 2022
- 현장실습 참여 시기 : 2025학년도 | 2학기
- 주요 실습 내용 : 아날로그 보드 설계 및 검증

주제 : C. 이 실습기관,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22학번 김지민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Solution개발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대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혹은 경험해보고싶다라는 생각이 드실거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하이웹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어 매우 유익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 학우분들에게 삼성전자 DS부문 현장실습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왜 삼성전자 현장실습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풀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현직자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이 있다는게 여러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현직자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있으며,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 등 간접적으로 배워갈수 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자소서 혹은 면접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삼성전자 JD만 보고는 해당 직무에 알맞는 자소서를 쓰는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삼성전자 자소서에서 1번과 4번은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답변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속해있는 팀 기준으로 주니어분들 대부분은 현장실습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면접관련해서 물어보니 삼성전자 현장실습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실제로 현장실습하신분들은 선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단점은 현장실습 혹은 전환형 인턴을 할 경우 실습을 했던 팀에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장점은 실습했던 팀에 TO가 없어도 공채만 뚫는다면 그대로 그 팀에 배치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실습 -> 공채로 들어오신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해당 팀에 배치가 되었고, 자신의 동기는 현장실습때 있었던 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팀 배치상담날에 다른 팀에 가서 적극어필했지만 결국에는 현장실습때 팀으로 배치받았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은 하면 입사하면 소파트 그대로 혹은 적어도 파트내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 차후 삼성전자 현장실습에 지원하실분들은 신중하게 그리고 소신있게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대기업의 복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다들 첫 직장을 대기업으로 가는것을 추천하는지 확실히 체감했습니다. 제가 가장 체감했던것은 삼시세끼 제공과 통근버스였습니다. 현재 5주간 현장실습을 하면서 평일에 저는 단 한푼도 쓴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서 먹을지 뭐를 먹을지 고민해서 고를 필요도 없고, 가서 먹고싶은 아침,점심,저녁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것은 매우 큰 메리트입니다. 메뉴도 많고 테이크아웃존도 있기에 집 가져가서 편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시는분들 혹은 다이어트하시는분들을 위한 웰핏 식단 그리고 단백질 등을 챙길 수 있어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그 다음 통근버스는 경기도 그리고 건대정도까지는 다 커버하는 범위로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할때 적어도 출근길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통학하면서도 지하철에서 매우 많은 인파로 인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으로써 통근버스에서 편하게 앉아 회사<->집으로 왕복하는게 정말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약속이 있을때는 해당 지역으로 가는 퇴근버스를 타는것도 가능했습니다. 통근버스를 타다보니 교통비도 들지않아서 좋았습니다. 수도권 외 타지역에서 오시는분들은 현장실습생 기준으로는 기숙사가 다 무료로 제공이 되기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에서 질 좋은 교육 시켜주고, 삼시세끼 밥챙겨주고, 통근버스, 기숙사 등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면서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는 기업은 없을겁니다. 동기들이랑 가끔 커피 타임을 가지면 이렇게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되냐는 얘기를 자주했습니다. 어찌보면 삼성전자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 현장실습이라고해서 좋은 스펙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학부생한테 원하는것은 기여를 하는것이 아닌 배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현장실습학기제
후기공모전
2025

한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팀

안내 : https://**intern.**hanyang.ac.kr 문의 : 02-2220-**2093~5**, **intern**@hanyang.ac.kr